

w



d

design without Design



D





design without Design

2016.5.3 — 6.26



design without Design

토탈미술관은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1976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갤러리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에는 경기도 장흥에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2년, 현재 위치한 서울 종로구평창동에 현대적인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본관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현대미술 전시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토탈미술관은 개관 40주년을 맞아 과거 토탈디자인의 실험적인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디자인’에 대한 집중적인 재고찰의 중장기 프로젝트(3년) <design without Design>을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제목인 <design without Design>은 1981년 토탈박스에서 출판한 <디자인 없는 디자인>에서 비롯되었다. 첫 단어 ‘design’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사용하여 이번 프로젝트 컨셉의 ‘오픈디자인’을 강조하고, 두 번째 ‘Design’은 대문자를 사용하여 유명디자이너의 제품디자인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최근 미술관, 갤러리에서 디자인에 대한 전시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들은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두기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유명 디자이너의 고가 제품들을 예술작품처럼 보여주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디자인’을 일상과 유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design without Design>은 전시제목에서 보여주듯, 다양한 창의적인 디자인적인 실험을 소개하고 ‘디자인’ 본연의 의미,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전시는 기존의 제품디자인 전시들과는 달리 실험적인 디자인 소개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객 스스로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design without Design>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워크샵 공방 및 제작연구소와 같은 형태에 머무르고자 한다.

design without Design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tal Museum) is the 1st private museum in Korea. Total Museum started as the Total Gallery which introduce contemporary design and craft in 1976 In 1982, Total Museum opened the 1st outdoor sculpture gallery in Jangheung, Gyunggi-do. Later 1992, Total Museum open the contemporary art museum in current area, Pyungchang-dong, Seoul. Since 1976, Total Museum has been introducing high edge contemporary art and experimental new projects such as artists-curators travelling project ‹Roadshow›, ‹playground in island› which has been doing in Kota Kinabalu, Malaysia.

For the memorable 40 years anniversary, Total Museum would like to highlight on ‘design’ again. ‹design without Design› is the 3 years project which Total Museum would like to share the idea of design with people. The title is ‹design without Design› comes from book ‹Design without design› which was published in 1981 by Total Books. There is changes first word ‘design’ with small letter in order to stress on the project concept ‘open design’ and the second ‘Design’ with capital ‘D’ means design by big capital and famous designers’ products.

Korea, like many other countries, put emphasis on creativity, boost the creative industries such as design, animation, multi-disciplinary projects. There are many big name designer’s show which gather many audiences. However, it seems to be too much oriented on business and profit perspective. Rather it is not seriously consider how we can improve our daily life and creativity itself.

‹design without Design› does not focus on successful design items, famous designers’ products. On the other hand, ‹design without Design› would like to build an open platform where people come together, share ideas, and make something by themselves. In other words, ‹design without Design› is not the exhibition which present completed products or showcase. It is more of workshop place or laboratory. That is also the reason we prefer design with small latter ‘d’ than capital ‘D’.

design

Rudolf Arnheim

Visual Thinningk

Christmas Card

Journal of Design and Manufactures

Henry Cole

London World's Fair

Karl Heinrich Marx

Industrial Revolution

William Morris

John Ruskin

Design Thinking

Art of Inovation

Art and Craft Movement

Pre-Raphaelite Brotherhood

Peter Rowe

Tom Kelley

IDEO

Art Nouveau

David Kelley

Futurism

Lissitzky . El

Tatin . Vladimir Evgrafovich

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 at Stanford

Art Déco

Constructivism

Walter Adolph Georg Gropius

bauhaus

Hermann muthesius

Deutscher Werkbund

WIKI

Free Software

GFDL

Android

General Public Licence

Ubuntu

Linux

Free Software Foundation

Linus Benedict Torvalds

Richard Matthew Stallman

Dreaming Funiture

Fiona Raby

Critical Design

Anthony Dunne

Open Structure

Appropriate Technology

DIY

Mobile Kitchen

1SQM

Social Design

Rilliquim

MAKE

Maison Margiela

3D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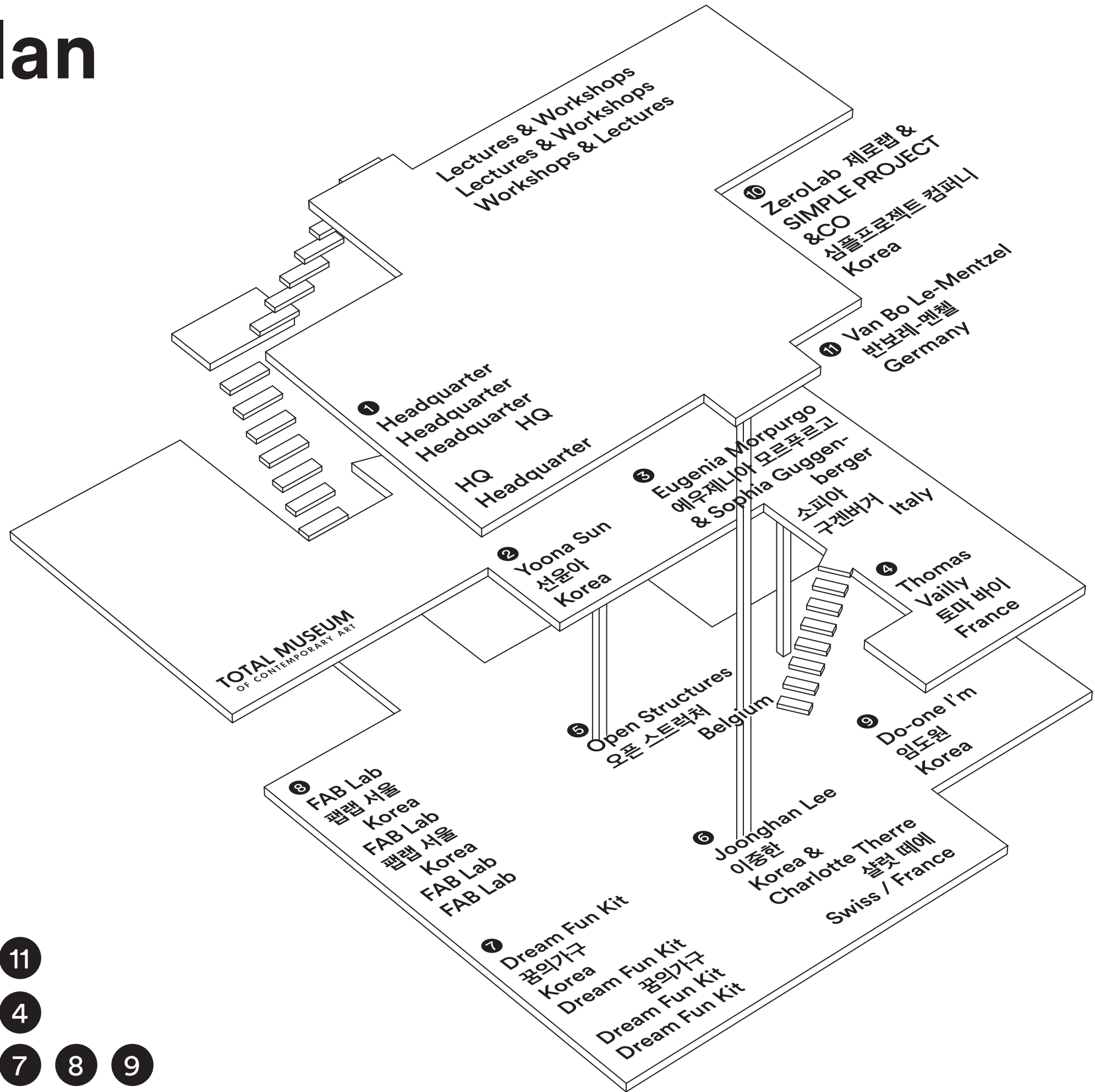
AnOtherShoe

Drone Workshop

Fashion Inner

Drone

Floor plan



1F

1 10 11

Mezz

2 3 4

B1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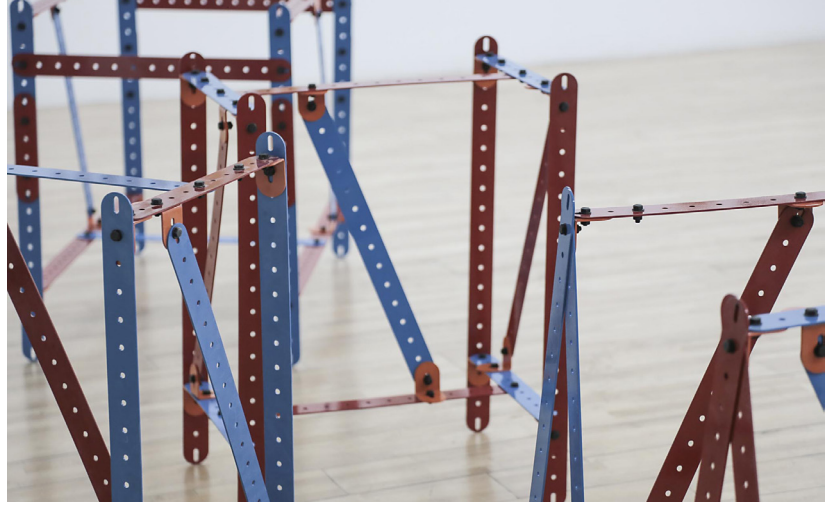
HQ

Headqueter









Mobile Kitchen Open Recipe





design without Design
open range

5 김도균의 피시 케첩 포인트
KDK Fish Sauce Point

menu

피시 케첩 포인트
Fish Sauce Point

순채전채
Wakamushi Salad


Recipe Story

이제야 알았지만 김도균은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김도균은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김도균은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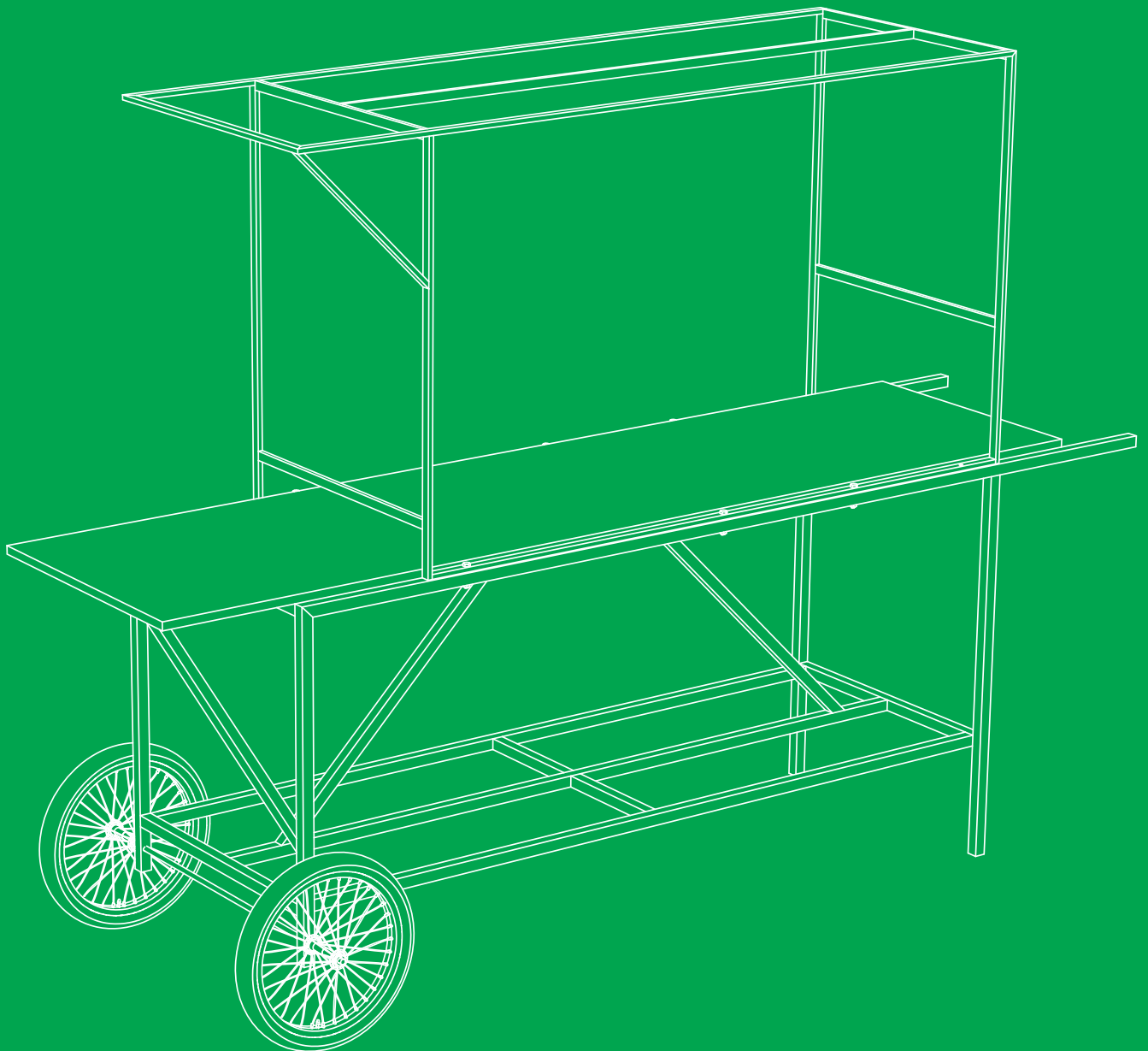
주요 장비
Flour in Order

이 문에서는 김도균의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김도균은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김도균은 김치와 피시 케첩이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 건 2014년 10월입니다.



모바일키친 <오픈 레서피>는 토탈미술관과 제로랩과 심플프로젝트 컴퍼니가 함께 하는 협업프로젝트로서 오픈소스 DIY 프로젝트인 <instructable restaurant>를 본 프로젝트에 맞춰 재구성한 프로젝트이다. <instrcutable restaurant>는 일반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웹사이트인 instructables.com 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오픈 매뉴얼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레스토랑으로 레서피는 물론, 가구와 램프 등 레스토랑의 모든 제품까지도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객, 방문객이 구매, 주문,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오픈소스, 오픈디자인 개념을 기반으로 한 <design without Design>(dwD)프로젝트의 모바일 키친은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요리/음식’을 매개로 디자이너, 아티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일반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샌드위치 레서피를 받고, 이를 레서피 제공자, 관객, 초대손님과 함께 먹으면서 캐주얼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픈 레서피>의 모든 레서피, 제로랩의 모바일키친 제작도면 등은 오픈소스로 공유하게 되며, 요리진행을 위해 심플프로젝트의 셰프 및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주문방법 How to Order

오픈 레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 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 step

주문하고 싶은 메뉴의 영수증을 선택해주세요.

2 step

영수증의 빈항목에 당신이 선택한 음식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3 step

항목이 채워진 영수증을 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레서피 프로젝트는 심플프로젝트, 토탈미술관, 제로랩의 협업으로 5. 14 - 6. 26 까지 진행됩니다. 총 7명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창작자의 참여로 매주 1개의 레시피를 공개 및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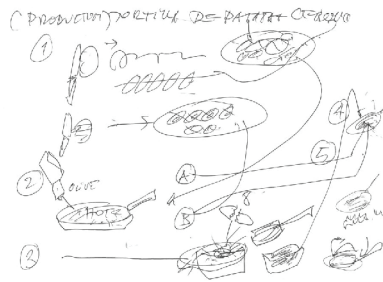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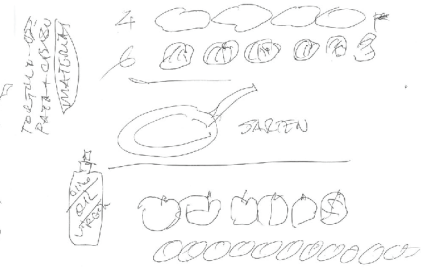
문타다스 토르띠아 레서피 tortilla de patatas



안토니오 문타다스 Antonio Muntadas
1942~바르셀로나 출생



오픈 레서피 1: 문타다스 토르띠아 드로잉



1 menu

문타다스 토르띠아
tortilla de patatas

바나나 디톡스 주스
banana detox Juice

2 menu

문타다스 토르띠아
tortilla de patatas

진 토닉
gin & tonic

3 menu

진 토닉
gin & tonic

토르띠아 토핑 2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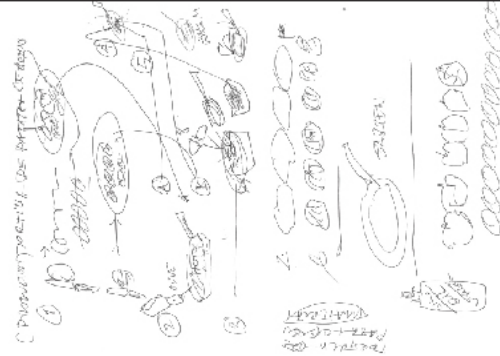
베이컨, 청피망, 파프리카, 체다치즈, 머시룸, 토마토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1

문타다스 포르피아 레서피
tortilla de patatas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문타다스 포르피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내용	금액
문타다스 포르피아 재료비	1,200원
감자, 양파, 계란, 각종 토핑	
바나나 디톡스 주스 재료비	500원
바나나, 단호박, 우유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서피 포장지, 종이 발매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문타다스 포르피아 레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아외 데크	원
토립미술관 아외 데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부가세	원
모든 상품에는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총 금액	원



안토니오 문타다스 Antonio Muntadas
1942~바르셀로나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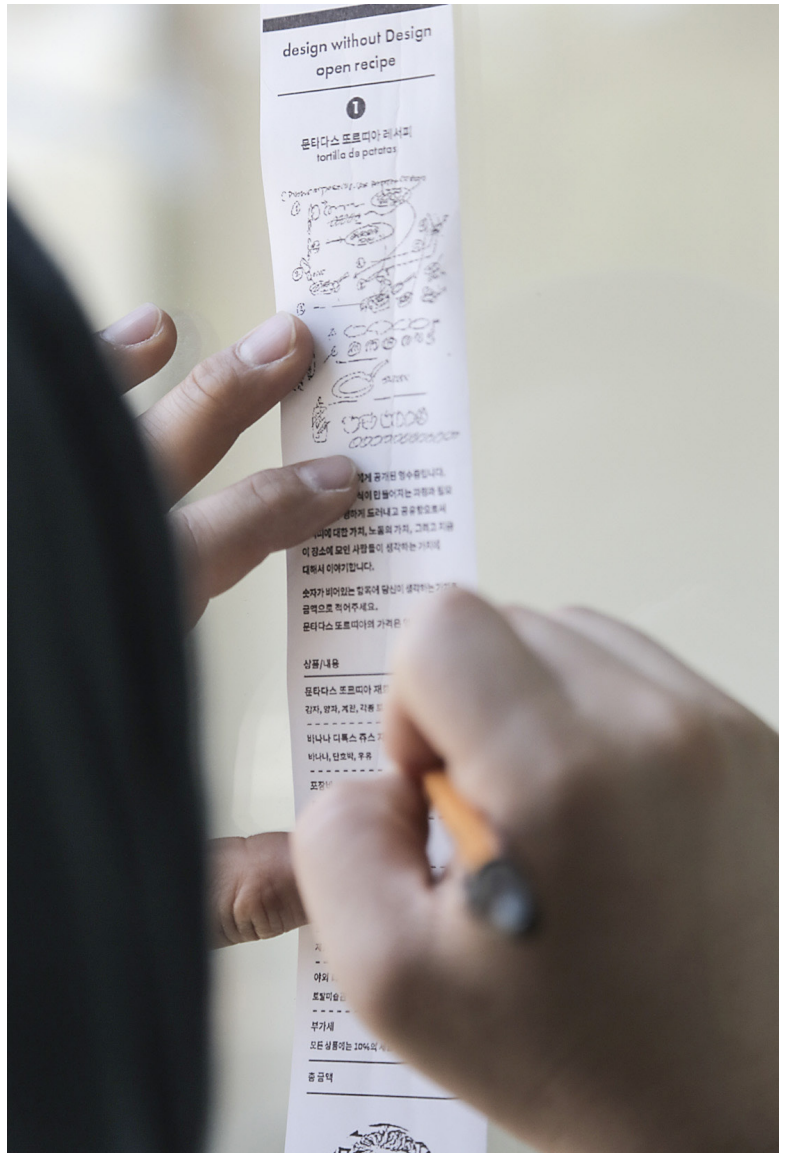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1

문타다스 포르피아 레서피
tortilla de pata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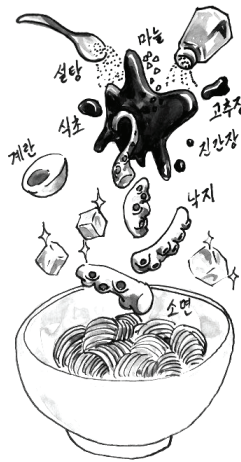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2

신제현의 낙지 비빔면 레서피
small octopus bibimmyeon



신제현 Jae Hyun - Shin
1982~서울 출생



오픈 레서피 2
신제현의 낙지 비빔면 드로잉

3년 전 친구가 포장해 온 낙지 비빔밥에 양념이 남아서 소면을 비벼 먹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프랑스 작가들과의 전시에서 프랑스 작가들이 낙지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여 무용수, 음악가와 함께 낙지 비빔면을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1 menu

낙지 비빔면
small octopus bibimmyeon

복분자 에이드
raspberry ade

2 menu

낙지 비빔면
small octopus bibimmyeon

3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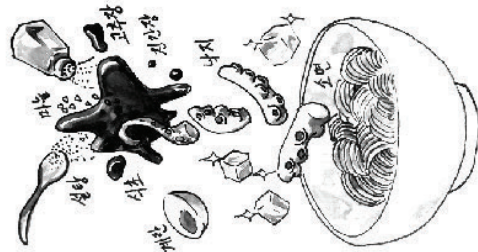
복분자 에이드
raspberry ade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2

신제현의 낙지 비빔면 레서피
small octopus bibimmyeon



3년 전 친구가 포장해 온 낙지 비빔밥에 양념이 남아서
남아서 소면을 비벼 먹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프랑스 작가들과의
전시에서 프랑스 작가들이 낙지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여 무용수, 음악가와 함께 낙지 비빔면을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신제현의 낙지 비빔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명/내용	금액
낙지 비빔면 재료비	1,900원
낙지, 오이, 양념장, 소면	
복분자 에이드 재료비	500원
복분자, 레몬, 탄산수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서피 포장지, 종이 붙대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신제현 낙지 비빔면 레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계투앱이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아이 데크	원
도원미술관 야외 테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총 금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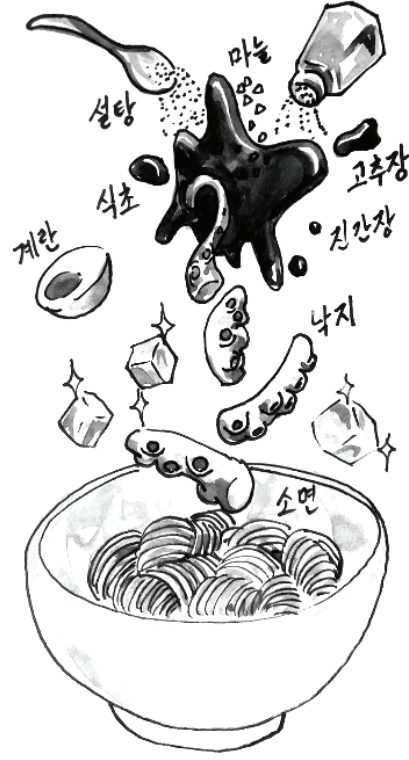


신제현 Jae Hyun - Shin
1982~서울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1ab

낙지 비빔면



3년 전 친구가 포장해 온 낙지 비빔밥에 양념이 남아서
소면을 비벼 먹은 것이 시작이다. 이후 프랑스 작가들과의
전시에서 프랑스 작가들이 낙지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여 무용수, 음악가와 함께 낙지 비빔면을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2

신제현의 낙지 비빔면 레서피
small octopus bibimmyeon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3

에바 알머슨의 토마토 콜드 스프
Eva Armisen - Gazpacho

오픈 레서피 3: 에바 알머슨 토마토 콜드 스프 드로잉

the end
* * *
w
D
Armisen

에바 알머슨 Eva Armisen
1969~스페인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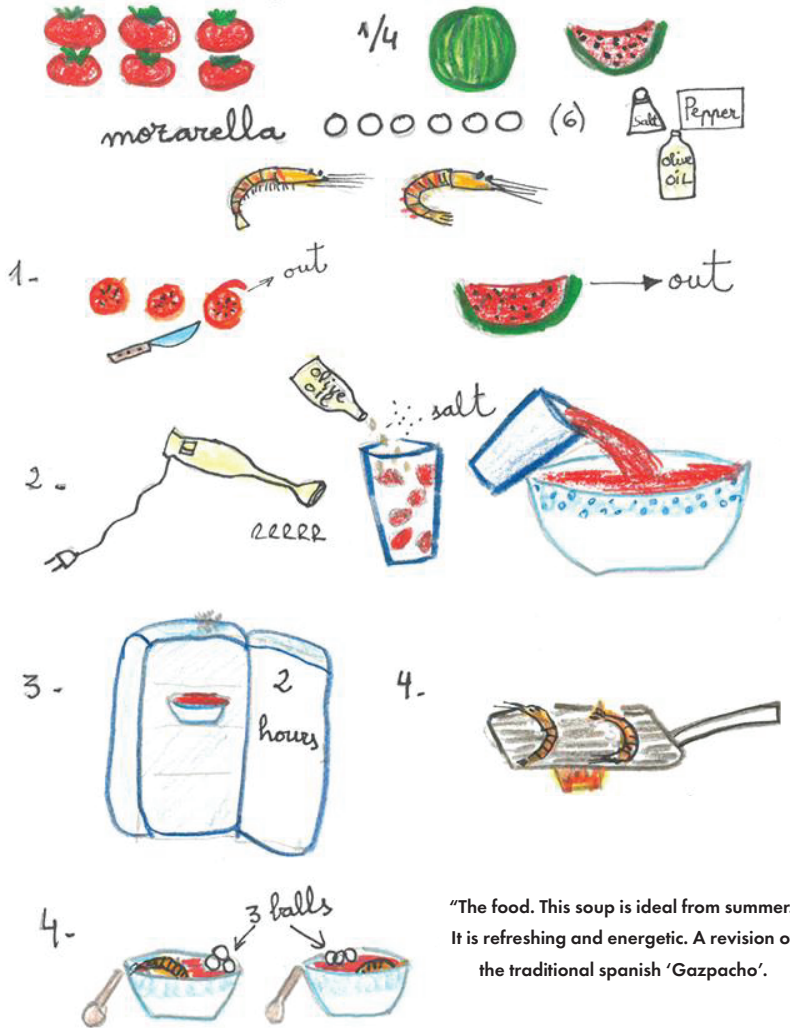
1 menu

토마토 콜드 스프
gazpa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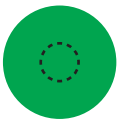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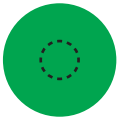
부르스게타
bruschetta

부르스게타 추가
1,000원

Watermelon and Tomato cold soup
(for t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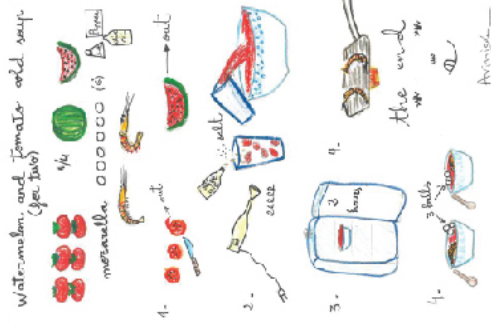
"The food. This soup is ideal from summer. It is refreshing and energetic. A revision of the traditional spanish 'Gazpacho'."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3

에바 알머슨의 토마토 콜드 스프
Eva Armisen - Gazpacho



"The food. This soup is ideal from summer. It is refreshing and energetic. A revision of the traditional spanish 'Gazpacho'."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에바 알머슨의 토마토 콜드 스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내용	금액
토마토 콜드 스프 재료비	2,800원
수박, 토마토, 새우, 모짜렐라	
부르스케타 재료비	400원
바게트, 커리치안, 햄, 모짜렐라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시피포 포장지, 종이 봉대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시피	원
에바 알머슨 레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스트 오븐소스 제조한 키친	
아외 데스크	원
토달미술관 야외 테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총 금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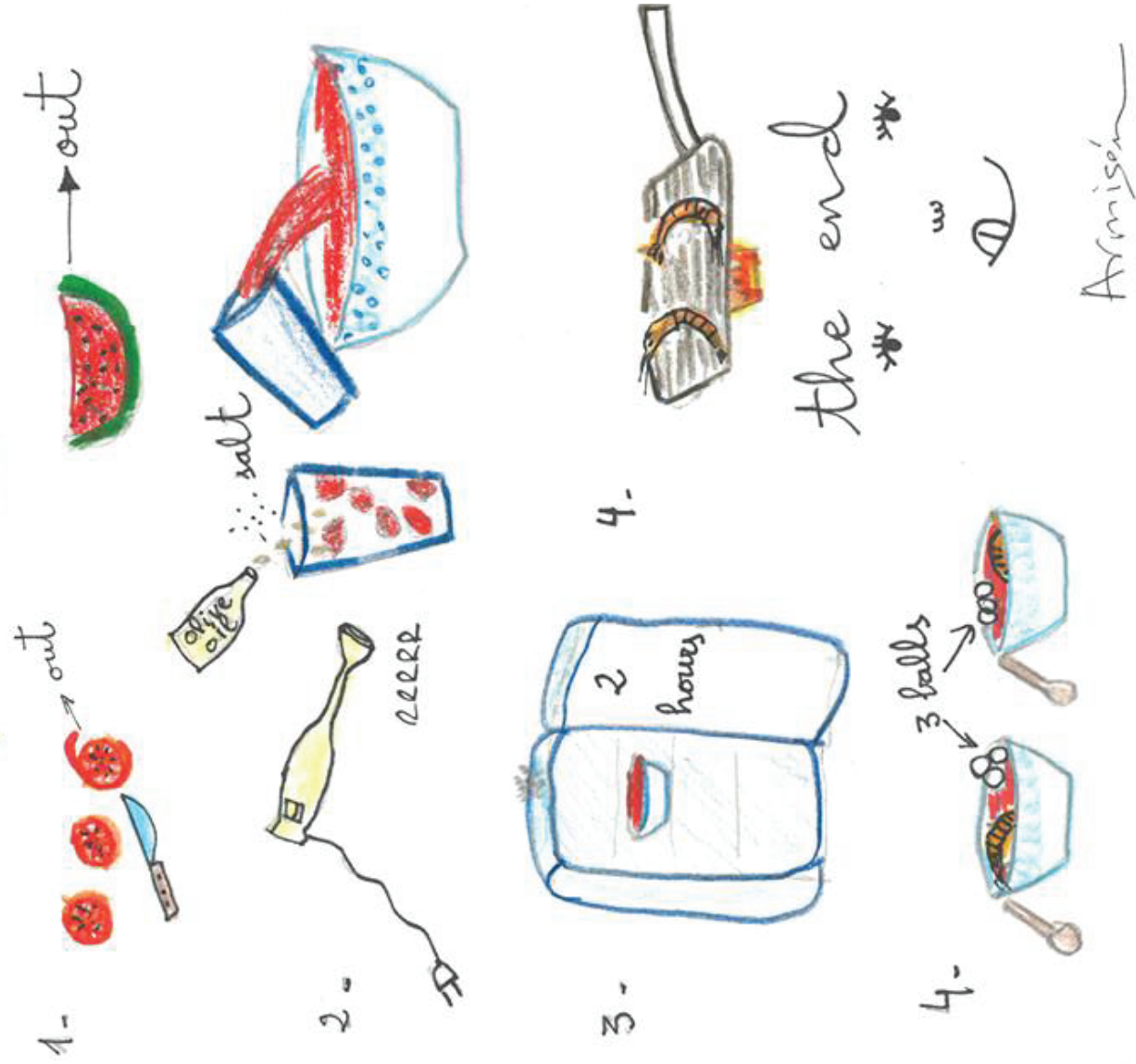
에바 알머슨 Eva Armisen
1969 ~ 스페인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lab



Watermelon and Tomato cold soup
(for two)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3

에바 알머슨의 토마토 콜드 스프
Eva Armisen - Gazpacho



"The food. This soup is ideal from summer. It is refreshing and energetic. A revision of the traditional spanish 'Gazpacho'."





4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Jung seung - Chicken breast Sandwich

1 menu

닭가슴살 샌드위치
Chicken breast Sandwich

매실 에이드
Japanese apricot Ade

"아리사(harissa) 소스를
결론인 대공란 크리미 닭가슴살
샌드위치"

오픈 레시피 4: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드로잉

7. 아리사 소스 - one more time

5. 체다 or 에멘탈 치즈

4. 상추 . 양파.

3. 크리미 닭가슴살
팬이 팬으로 썬 닭가슴살은
간이 크리스피 해져도록 구워준 후,
나머지 재료를 추가해서
흔들어내리니 살을 감도로 줄여준다.

2. 구운가지 (Antipasti)

2. 아리사 소스 (뜨거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서
팬에 올리향을 두리 볶아준다.
소금 레몬즙(1)
올리브오일(2)
화이트와인(2) 후추
볶은 고춧가루(1) 페이스트(1)
다진마늘
* 취향대로 비율 조정

6. 햄과 피노

1. 아리사 소스

* 바게트의 딱딱한 껍질이
심은 문둥을
뒤내서

감자 필러를
바게트 껍질 안쪽을 제거
해준다.



정승 Jung seung
1976~정읍 출생

레시피에서 포인트는 아리사(harissa) 소스입니다. 프랑스 유학시절 느끼한 음식에 지쳐갈 즈음 이태리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소스입니다. 하도 식사 때마다 이 소스를 곁들여 먹었더니 다른 직원들이 '승소스'로 부르기도 했었죠. 또 한 지인에게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더니 2~3달을 거의 매일 크림 파스타만 먹었다고도 하더군요. 각종 육류나 생선 혹은 크림 파스타 등 기름기가 있는 음식에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베지타리안들에게는 구운 채소에도 잘 어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파리 유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아리사 소스를 오랜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4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Jung seung
Chicken breast Sandwich



레서피에서 포인트는 아리사(harissa) 소스입니다. 프랑스 유학시절 느끼한 음식에 지쳐갈 즈음 이태리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소스입니다. 하도 식사 때마다 이 소스를 곁들여 먹었더니 다른 직원들이 '승소스'로 부르기도 했었죠. 또한 저인에게 레서피를 가르쳐 주었더니 2-3달을 거의 매일 크림 파스타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각종 육류나 생선 혹은 크림 파스타 등 기름기가 있는 음식에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베지タリア안들에게는 구운 채소에도 잘 어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파리 유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아리사 소스를 오랜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명/내용	금액
닭가슴살 재료비	1,520원
바게트, 가지, 닭가슴살, 에멘탈 치즈, 양상추, 양파, 할라피뇨, 아리사 소스	
매실 에이드 재료비	300원
매실액, 레몬주스, 스프라이트, 레몬, 애플민트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서피 포장지, 종이 롤대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정승 레서피의 가치	원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원
아와 테크	원
토탈미술관 아와 테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원
총 금액	원



정승 Jung seung
1976-정릉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lab



1. 아리사(harissa) 소스를 곁들인 매콤한 크리미 닭가슴살 샌드위치



1. 아리사 소스 - ONE MORE TIME



6. 한나 피노

5. 체다 or 에멘탈 치즈

4. 상추, 양파.

2. 구운가지 (Antipas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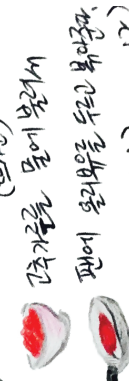
2. 구운 가지 (or 2. 양파)

팬으로 썬 오일을 갈아서 무늬가 남도록 구워준다.

→ 후추, 올리브 오일을 양념으로 바른다.



1. 아리사 소스 (뜨거운)



간혹 물을 묻혀 불려서 팬에 올리부를 두리 볶아준다.

화이트 와인(2)

붉은 고추(1)

파스타

간짜 피클과 함께 바게트 겹겹인 부분을 찢기 해준다.



X 바게트의 딱딱 경직이 심은 부분을 뒤에서

3. 크리미 닭가슴살 팬이 편으로 썬 닭가슴살을 같이 크리시피 해지도록 구워준다. 나머지 재료를 추가해서 흔들어내지 않도록 조리한다.



X 물을 꼬고 아리사 소스와 섞어준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4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Jung seung
Chicken breast Sandwich



레서피에서 포인트는 아리사(harissa) 소스입니다. 프랑스 유학시절 느끼한 음식에 지쳐갈 즈음 이태리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소스입니다. 하도 식사 때마다 이 소스를 곁들여 먹었더니 다른 직원들이 '승소스'로 부르기도 했었죠. 또 한 지인에게 레서피를 가르쳐 주었더니 2-3달을 거의 매일 크림 파스타만 먹었다고도 하더군요. 각종 육류나 생선 혹은 크림 파스타 등 기름기가 있는 음식에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베지タリア안들에게는 구운 채소에도 잘 어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파리 유학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아리사 소스를 오랜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5

김도균의 파스타 Kim do kyun - Pasta

menu

김도균의 파스타
Kim do kyun - Pa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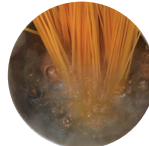
수박화채
Watermelon Salad

* 당일 준비된 재료 모두 소진 시 모바일 키친
운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오픈 레시피 5: 김도균의 파스타 조리과정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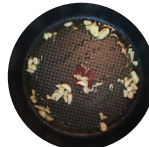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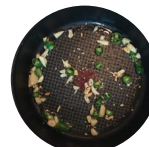
4



5



6



7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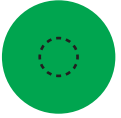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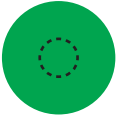
12



김도균 Kim do kyun
1973 출생

Recip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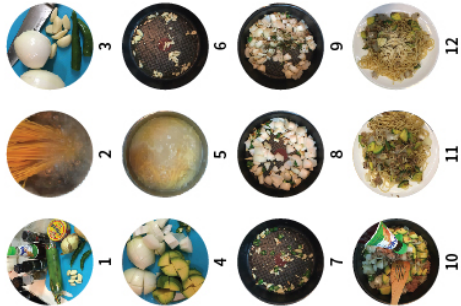
이태리 남쪽 지방에 있는 피시소스 베이스의 파스타
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친구를 통해 이 레시피를
알게 되었고 유학기간 동안 정말 많이해 먹었던 파스타
랍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쓰던 피시소스
대신 맛이 비슷한 까나리나 멸치액젓으로 파스타를
해 먹어 봤는데 그 맛 또한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는
맛이어서 지금도 작업실에서 가끔 해 먹는 아주 간단
하지만 담백한 파스타입니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5

김도균의 파스타
Kim do kyun - Pasta



이태리 남쪽 지방에 있는 피시소스 베이스의 파스타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친구를 통해 이 레시피를 알게 되었고 유학기간 동안 정말 많이 해 먹었던 파스타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쓰던 피시소스 대신 맛이 비슷한 까나리나 멸치액젓으로 파스타를 해 먹어 봤는데 그 맛 또한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작업실에서 가끔 해 먹는 아주 간단하지만 담백한 파스타입니다.

이 영수장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정승의 닭가슴살 샌드위치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명/내용	금액
파스타 재료비	1,820원
스파게티, 마늘, 예호박, 양파, 크러쉬드 치즈, 올리브 오일, 피시소스	
수박화채 재료비	1,050원
수박, 탄산수, 레몬, 애플민트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시피 포장지, 종이 봉대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김도균 레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아이 데크	원
토탈미술관 야외 데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총 금액	원



김도균 Kim do kyun
1973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1ab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5

김도균의 파스타
Kim do kyun - Pasta



이태리 남쪽 지방에 있는 피시소스 베이스의 파스타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친구를 통해 이 레시피를 알게 되었고 유학기간 동안 정말 많이 해 먹었던 파스타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쓰던 피시소스 대신 맛이 비슷한 까나리나 멸치액젓으로 파스타를 해 먹어 봤는데 그 맛 또한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도 작업실에서 가끔 해 먹는 아주 간단하지만 담백한 파스타입니다.







노세환의 고추잡채
Sean Roh - Sautéed Beef and Green Pepper

menu

고추잡채

Sautéed Beef and Green Pepper

유자에이드

Yuzu Ade

* 당일 준비된 재료 모두 소진 시 모바일 키친 운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오픈 레시피 6: 노세환의 고추잡채 드로잉 및 조리과정



1 재료준비

파리고추(매운 것은 싫어하지만, 고추향은 좋아한다), 양송이, 새우, 굴소스, 전분가루, 후추, 양파, 삼겹살(고기는 기름기가 좀 없게 줘야한다. 목살은 싫어한다), 식물성기름 (추석 때면 어디선가 들어온다)

2 적당한 크기로 썰다

파리고추, 새우, 양송이, 양파, 삼겹살(고기는 기름기가 좀 있어 줘야 한다. 목살은 싫어한다)

3 야채 볶기

야채는 대충 볶는다. 순서대로 볶는 원가가 있지만, 야채는 야채일 뿐 큰 차이는 없다.

4 새우, 삼겹살 따로 볶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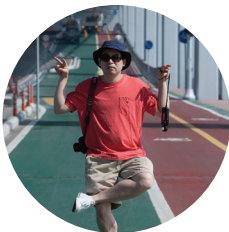
새우를 볶는다. 생각보다 빨리 익는다. 너무 익으면 사이즈가 작아지니 조심한다. 삼겹살은 취향에 따라 익힌다.

5 다같이 볶기

파리고추, 양송이, 양파를 다 같이 볶으며, 굴소스로 간을 한다. 전분가루를 물에 적당히 녹여 부어주고, 조금 더 볶는다. 전분가루를 그냥 넣으면 가루가 씹힐 수도 있으니 주의!

6 고추잡채 완성

이쯤 되면 배가 고프다. 냄새 때문에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프다. 살찌지 않게 조심한다.



노세환 Sean Roh
1978 출생

Recipe Story

공교롭게도 그간 있었던 작업실들이 주변에서 점심을 사먹기 쉬운 곳들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점심 식사 정도는 가볍게 작업실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되었다. 공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혼자만을 위한 점심을 하게 되면 점심 식사 자체뿐만 아니라, 짧은 조리시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먹기 쉬운 형태, 식사 후의 간편한 설거지, 자주 먹게 되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 등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나의 점심 메뉴들의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추잡채는 수많은 라면만 먹던 날들을 지나, 3분 카레만 질리게 먹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밥 같은 밥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메뉴이다. 그리고 굴 소스와 감자 전분의 조화는 어지간하면 실패하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분들과 이 레시피를 나누고 싶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6

노세환의 고추잡채
Sean Roh
Sauteed Beef and Green Pepper



공교롭게도 그간 있었던 작업실들이 주변에서 점심을 사먹기 쉬운 곳들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점심 식사 정도는 가볍게 작업실에서 스스로 해결 하게 되었다. 공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혼자 만을 위한 점심을 하게 되면 점심 식사 자체뿐만 아니라, 짧은 조리시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먹기 쉬운 형태, 식사 후의 간편한 설거지, 자주 먹게 되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 등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나의 점심 메뉴들의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추잡채는 수많은 라면만 먹던 날들을 지나, 3분 카레만 질리게 먹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밥 같은 밥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메뉴 이다. 그리고 굴 소스와 감자 전분의 조화는 어지간 하면 실패하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분들과 이 레시피를 나누고 싶다.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노세환의 고추잡채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품/내용	금액
고추잡채 재료비	1,780원
파리고추, 새우, 삼겹살, 양송이, 양파, 굴소스, 꽃빵 2개	
유자에이드 재료비	920원
유자, 레몬, 스프라이트	
포장비	200원
트레이용 레시피 포장지, 종이 빨대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김도균 레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아이 데크	원
토탈미술관 야외 데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총 금액	원



노세환 Sean Roh
1978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lab



1 재료준비

파리고추(매운 것은 싫어하지만, 고추향은 좋아한다), 양송이, 새우, 굴소스, 전분가루, 후추, 양파, 삼겹살(고기는 기름기가 좀 있어 줘야한다. 목살은 싫어한다), 식물성기름 (추석 때면 어디선가 들어온다)

2 적당한 크기로 썬다

파리고추, 새우, 양송이, 양파, 삼겹살(고기는 기름기가 좀 있어 줘야한다. 목살은 싫어한다)

3 야채 볶기

야채는 대충 볶는다. 순서대로 볶는 원가가 있지만, 야채는 야채일 뿐 큰 차이는 없다.

4 새우, 삼겹살 따로 볶기

새우를 볶는다. 생각보다 빨리 익는다. 너무 익으면 사이즈가 작아지니 조심한다. 삼겹살은 취향에 따라 익힌다.

5 다같이 볶기

파리고추, 양송이, 양파를 다 같이 볶으며, 굴소스로 간을 한다. 전분가루를 물에 적당히 녹여 부어주고, 조금 더 볶는다. 전분가루를 그냥 넣으면 가루가 씹힐 수도 있으니 주의!

6 고추잡채 완성

이쯤 되면 배가 고프다. 냄새 때문에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프다. 살찌지 않게 조심한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6

노세환의 고추잡채
Sean Roh
Sauteed Beef and Green Pepper

공교롭게도 그간 있었던 작업실들이 주변에서 점심을 사먹기 쉬운 곳들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점심 식사 정도는 가볍게 작업실에서 스스로 해결 하게 되었다. 공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혼자 만을 위한 점심을 하게 되면 점심 식사 자체뿐만 아니라, 짧은 조리시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먹기 쉬운 형태, 식사 후의 간편한 설거지, 자주 먹게 되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 등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춘 나의 점심 메뉴들의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추잡채는 수많은 라면만 먹던 날들을 지나, 3분 카레만 질리게 먹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밥 같은 밥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메뉴 이다. 그리고 굴 소스와 감자 전분의 조화는 어지간 하면 실패하기 힘든 조합이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분들과 이 레시피를 나누고 싶다.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7

임수미의 원 팬 뉴욕 떡볶이
IMSUMI
One Pan New York Tteokbok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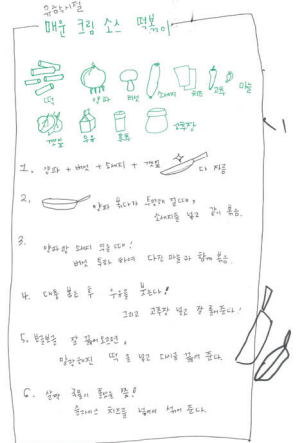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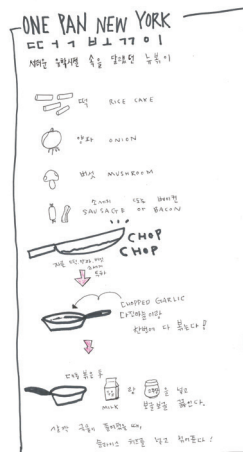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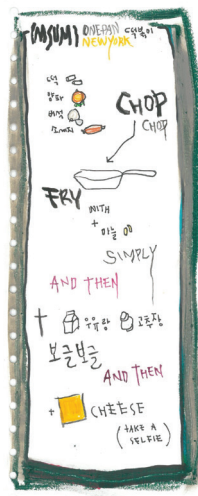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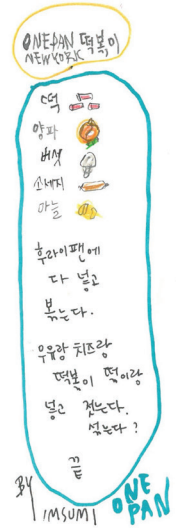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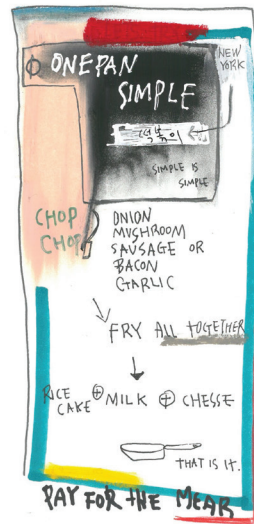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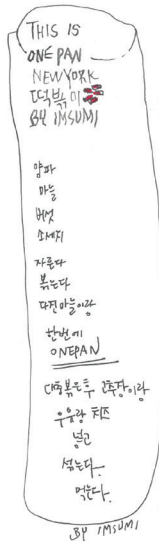
menu

원 팬 뉴욕 떡볶이
One Pan New York Tteokbokki

레몬에이드
Lemon Ade

* 당일 준비된 재료 모두 소진 시 모바일 키친
운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오픈 레서피 7: 임수미의 원 팬 뉴욕 떡볶이 드로잉 시리즈



임수미 IMSUMI
1984 출생

Recip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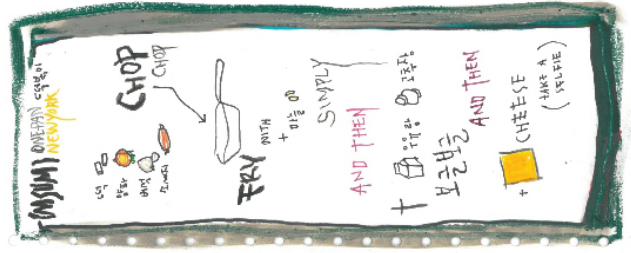
뉴욕에서 해줬던 부드럽고 매콤한 떡볶이.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7

임수미의 원 팬 뉴욕 떡볶이
IMSUMI
One Pan New York Tteokbokki



뉴욕에서 해줬던 부드럽고 매콤한 떡볶이.

이 영수증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수증입니다. 오픈 레시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필요 항목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레시피에 대한 가치,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어있는 항목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임수미의 원 팬 뉴욕 가격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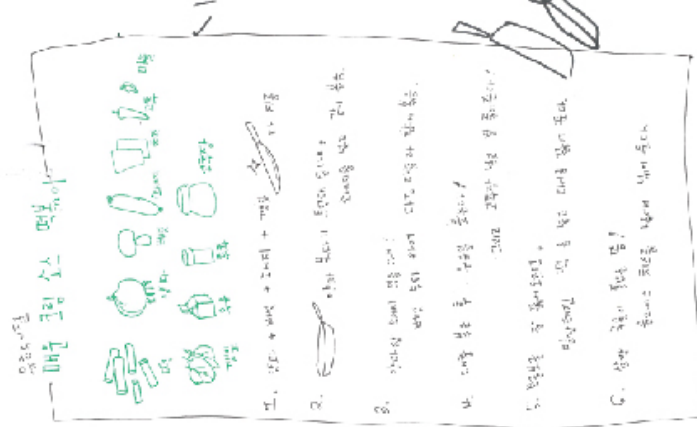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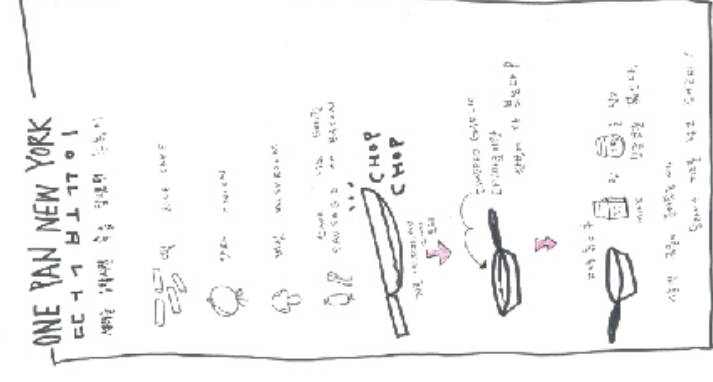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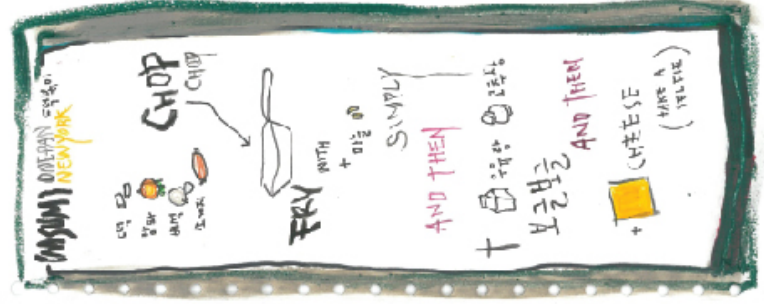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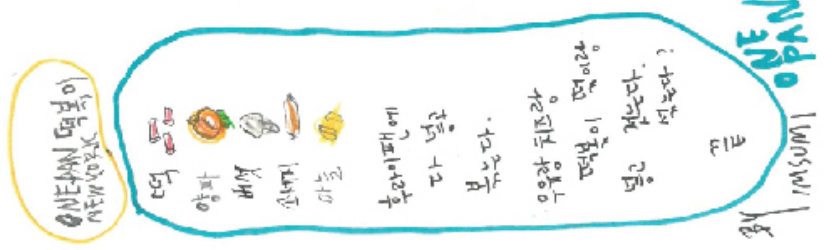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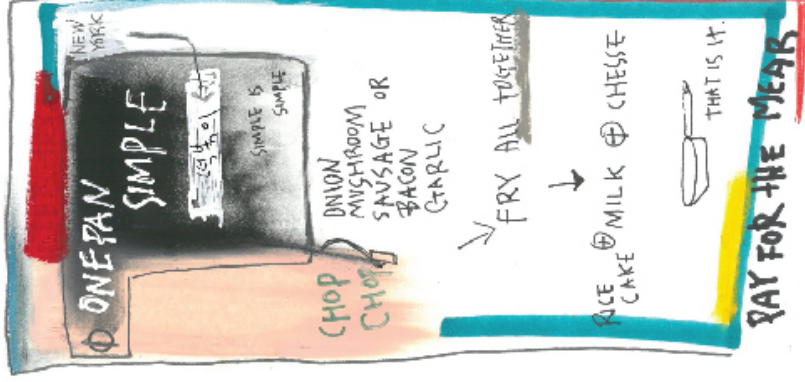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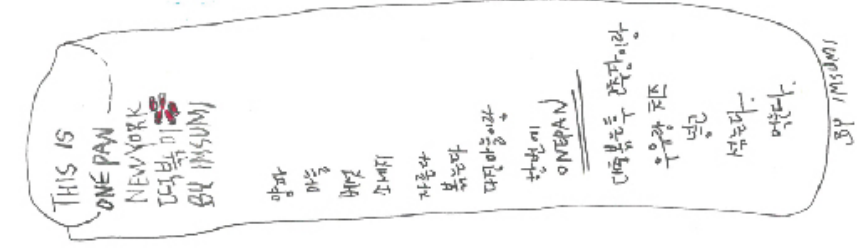
상품/내용	금액
떡볶이 재료비	1,020원
떡, 고추장, 양파, 버섯, 고추, 마늘, 우유, 크림, 껌 및 소세지, 치즈	
레몬에이드 재료비	380원
레몬, 시럽, 스포라이트	
포장비	200원
트레이를 레시피 포장지, 종이 발매	
인건비(3시간 근무)	원
2016년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	
레서피	원
임수미 레서피의 가치	
모바일 키친	원
제로웨이스트 오픈소스로 제작한 키친	
아외 데크	원
토탈미של관 아외 데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총 금액	원



임수미 IMSUMI
1984 출생

즐거운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IMPLE PROJECT & CO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zerolab



오픈 레서피 7: 임수미의 원 팬 뉴욕 떡볶이 드로잉 시리즈

design without Design
open recipe

7

임수미의 원 팬 뉴욕 떡볶이
IMSUMI
One Pan New York Tteokbokki



뉴욕에서 해줬던 부드럽고 매콤한 떡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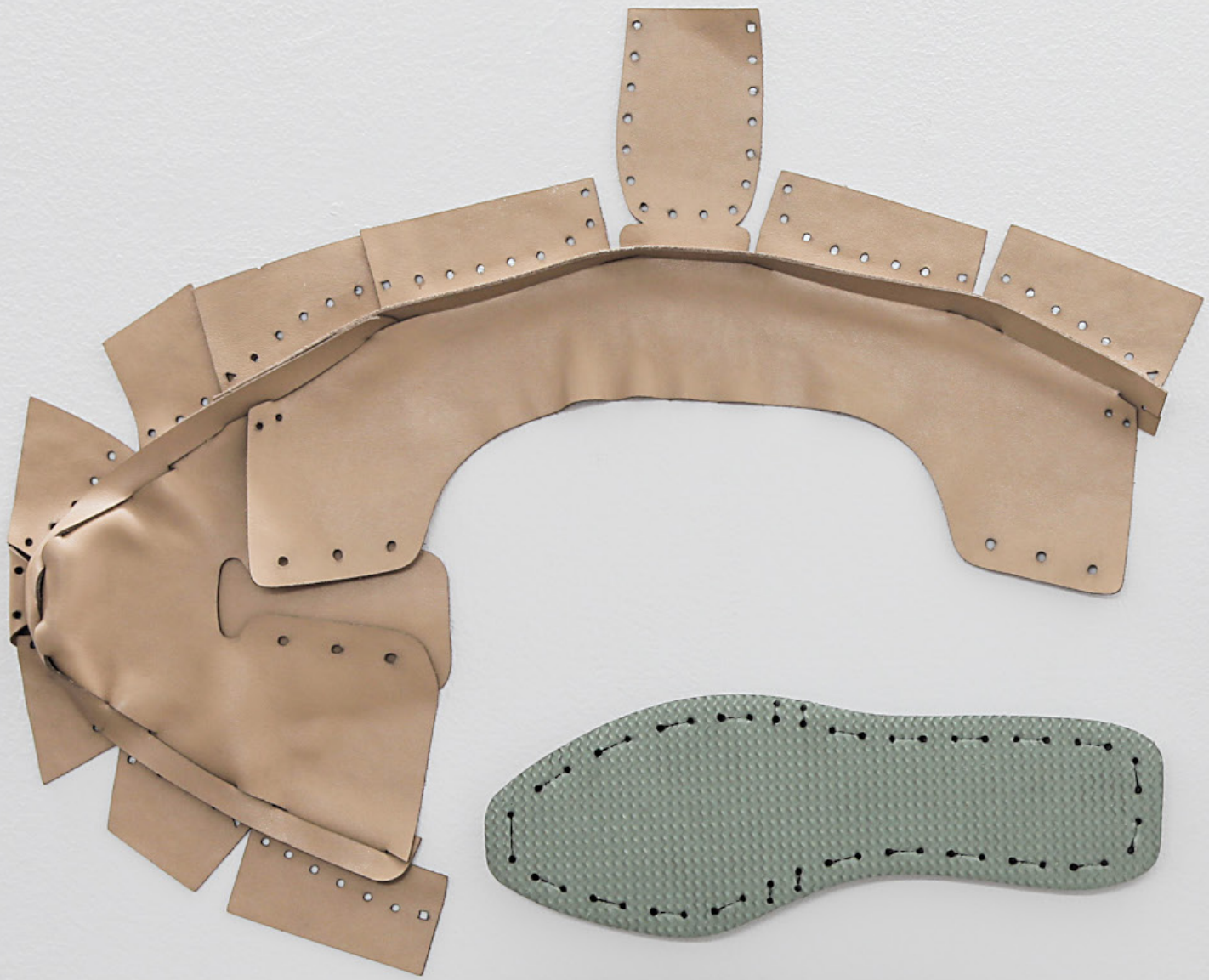


AnOtherShoe



3







AnOtherShoe

AnOtherShoe 는 소피아 구겐버거와 에우지니아 모르푸르고의 프로젝트다.

AnOtherShoe 는:

열려있는.

모든 기술 도면은 생산/조립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지시서, 저작물사용 허가표시(CCL)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제작자, 디자이너 사이의 네트워크가 생성되며 ‘메이커 스페이스’라 불리는 협업공간과 자료출처에 대한 정보 또한 공유된다. 지식은 워크숍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한다.



단순한.

단순화된 구조는 단순한 생산 공정을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제품 제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속할 수 있는.

신발은 수요에 의해 로컬로 제작되며, 따라서 과잉생산을 낳지 않는다. 또한 수리할 수 있으며, 신발의 구성 요소들은 따로 처리할 수 있다.









Sophia Guggenberger

오스트리아 출신의 풋웨어 디자이너/제작자이다. 초기에는 텍스타일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패션디자인과 의류공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 풋웨어라는 광대한 세계로 뛰어들었다. 런던예술대학(UAL) 학사학위 이수를 위해 2009년 런던으로 이동했다. 풋웨어 디자인과 개발로 2012년 UAL패션대학을 졸업한 후 스페인의 풋웨어 회사인 캠퍼에서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4년 가을 베를린으로 옮겨와 베를린예술대학교(UDK)에서 디자인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현재 베를린에 머물며 신발제작을 위한 공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녀는 공예의 아이디어를 디자인의 맥락 속에 통합하는 작업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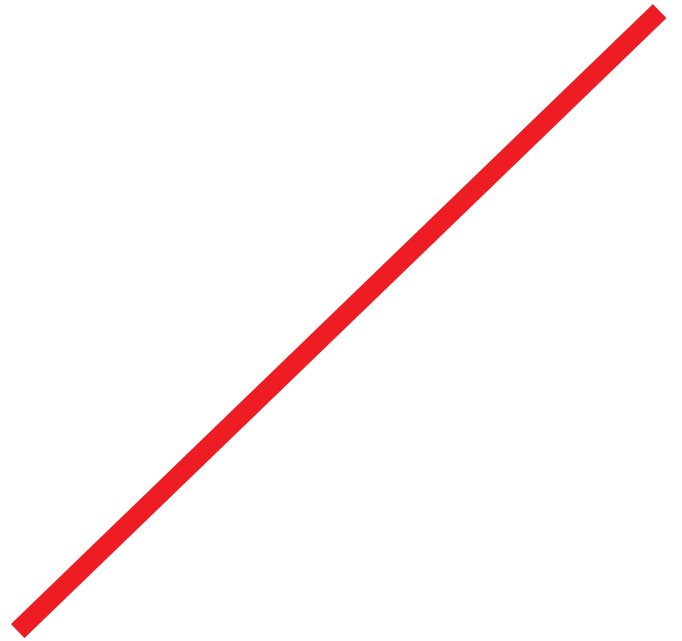


Eugenia Morpurgo

이탈리안 디자이너로 디지털 공예 분야에서 일하며, 새로운 생산 공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09년 베니스의 IUAV대학에서 산업디자인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네덜란드로 옮겨와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소셜 디자인 석사과정을 밟았다. 연구를 지속함과 동시에, 르완다 키갈리에 기반을 둔 르완다 기술개발 아틀리에의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이탈리아 볼차노의 보첸자유대학에서 생산기술과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소셜 디자인과 리서치 프로젝트 분야의 독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여러 문화 기관의 의뢰를 받아 국제적인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제작실험실)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AnOtherShoe



Workshop









AnOtherShoe



A—O—S— 2015

AnOtherShoe



AnOtherShoe

Bridging the gap between digital fabrication and traditional market relations, **AnOtherShoe** is a project developed by Sophia Guggenberger and Eugenia Morpurgo.

We make shoes using alternative production strategies which allow consumers to own their product as well as the knowledge to make, modify and repai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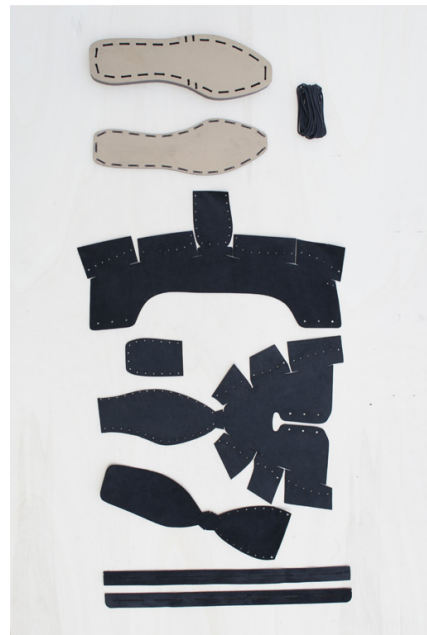
Production Process

Employing a Laser Cutter, all the necessary parts can be cut using a single file containing all the information for the production. The shoes can then be assembled by hand using only a shoe lace.

Workshops

In order to engage the consumer in the production process we are interested to give workshops in a variety of Maker Spaces. We see these workshops as moments to help distribute the values of the project and facilitate the sharing of knowledge. They can range from a shared production experience to a design-focused creative workshop promoting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AnOtherShoe



AnOtherShoe is thought to be versatile.

Make it Yourself

The production file, instructions and a sourcing guide can be downloaded online for free. The maker is able to choose all the materials by himself and create his personal version of **AnOtherShoe**. He gains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production process.

Assemble it Yourself

The customer can purchase an Assembly-Kit, which delivers all the components pre cut. The material and components are sourced and selected by **AnOtherShoe**. This option enables the customer to better understand the parts involved in making his product, as well as its construction.

Wear it Yourself

In order to be able to offer the shoes to a more differentiated audience, which does not necessarily come from a DIY background, this option consists of a finished pair of shoes, ready to wear. All the different elements of the production are organized by **AnOtherShoe**.



AnOtherShoe



Contact

hello@anothershoe.net
anothershoe.net

Sophia Guggenberger
004917625396798

Eugenia Morpurgo
00393398056887

A—O—S— 2015



Components

- 1 Front Strap
- 2 Vamp
- 3 Tongue
- 4 Heel Piece
- 5 Counter
- 6 Back Strap
- 7 Insole
- 8 Outsole
- 9 Laces
- 10 Needle

Assembly Guide





Front Strap

Assembly Guide

- / Inside Mark
- / Central Slot
- / Rounded off Edges along the bottom of the strap.
- / The bottom (part underneath the slots) is wider than the top





V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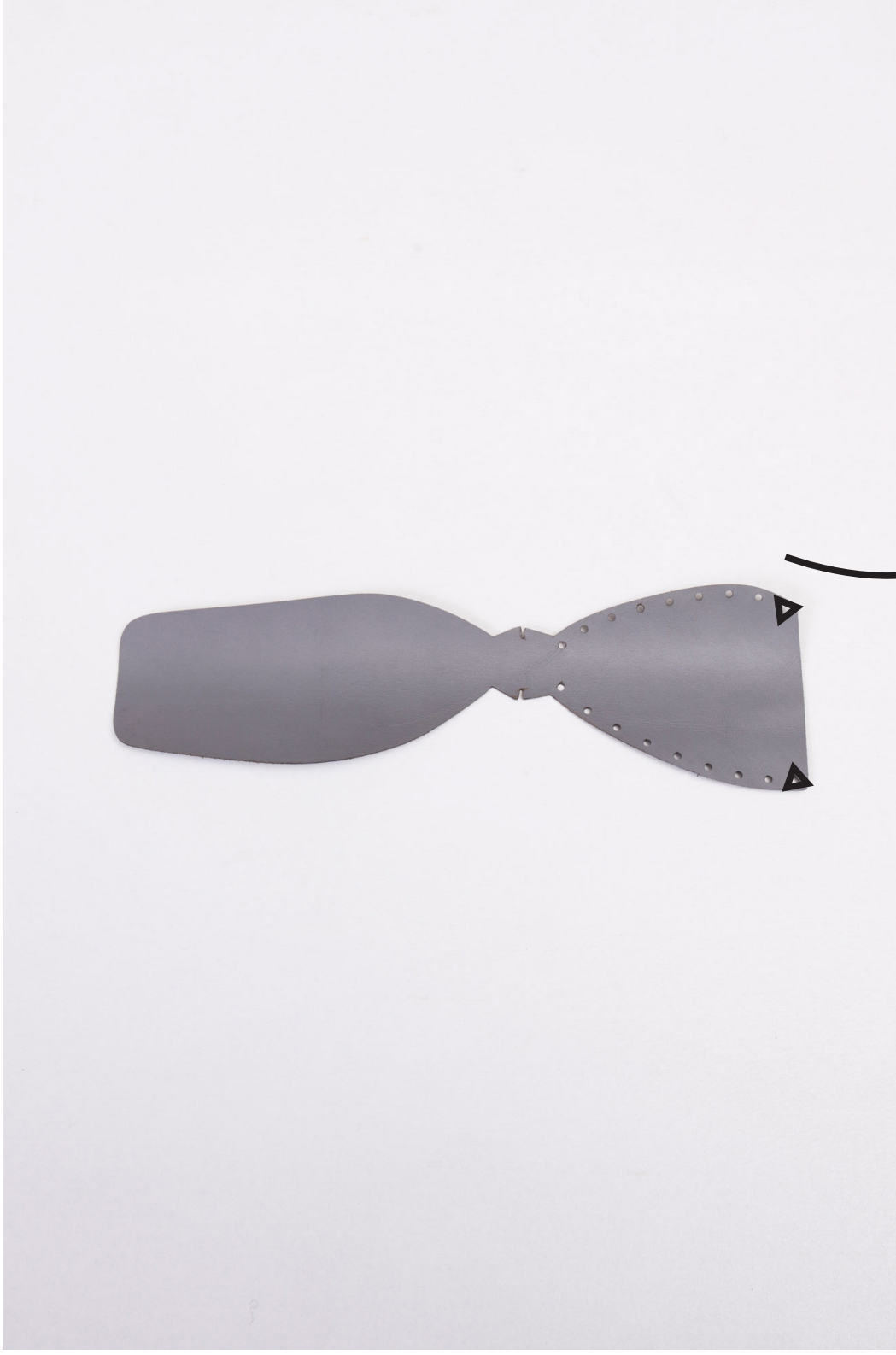
- / See curve following the line of the inside of the shoe
- / Inside Mark
- / Triangular Marks for overlay in the front
- / Square Marks for Overlay in the back





Tongue

- / See curve following the line of the inside of the shoe
- / Triangular Marks for overlay in the front





Counter

- / Inside Mark
- / Triangular Marks for overlay in the front
- / Square Marks for Overlay in the back





Heel Piece

/ Inside Mark

/ Square Mark for
Overlay in the back



Assembly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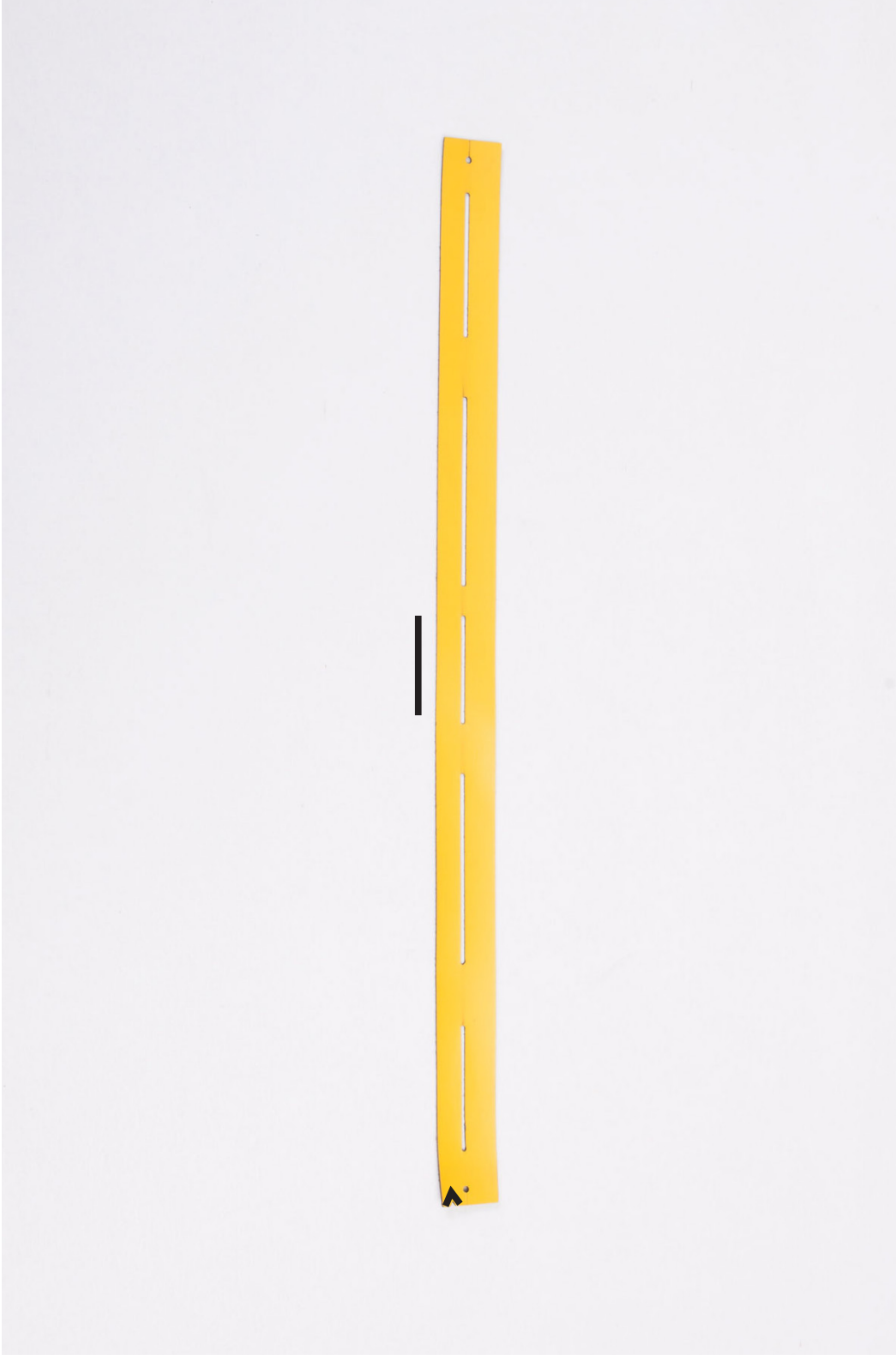
Back Strap

Assembly Guide

/ Inside Mark

/ Central Slot

/ The bottom (part underneath the slots) is wider than the top





Insole & Outsole

Insole

/ 4mm EVA

/ The channels created in the insole marked in the insole marked the top. They allow the lace to sit flat within the insole.

Outsole

/ 13 mm EVA

/ The channels connecting to the holes are on the bottom of the outsole. They allow for the lace to disappear.

/ The double perforations are the lacing slots.





Laces & Needle

Assembly Guide

Front Lace

/ Short Lace

Back Lace

/ Long Lace

Needle

/ Thin metal needle to lace the shoe.





Step 1

A Components:
+ Tongue
+ Front Strap



B



B Goal:
Connect Tongue to
Front Strap

1 roll tongue



2



2 slide tongue into the
central slot

Be careful that the tongue first passes over the strap and after entering the slot under
CHECK ORIENTATION OF PIECES



Step 2



A Components:
+ Vamp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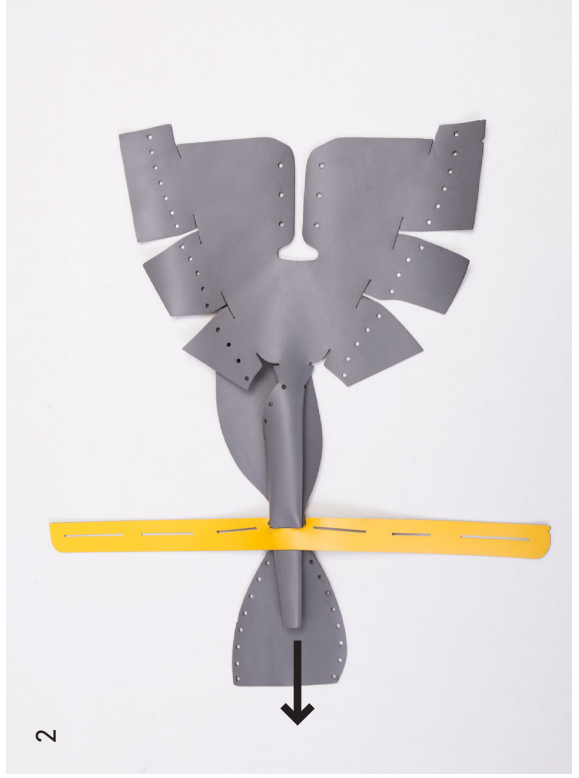


B Goal:
Connect Vamp to Front
Strap

1 roll vamp



2 slide vamp into the central
s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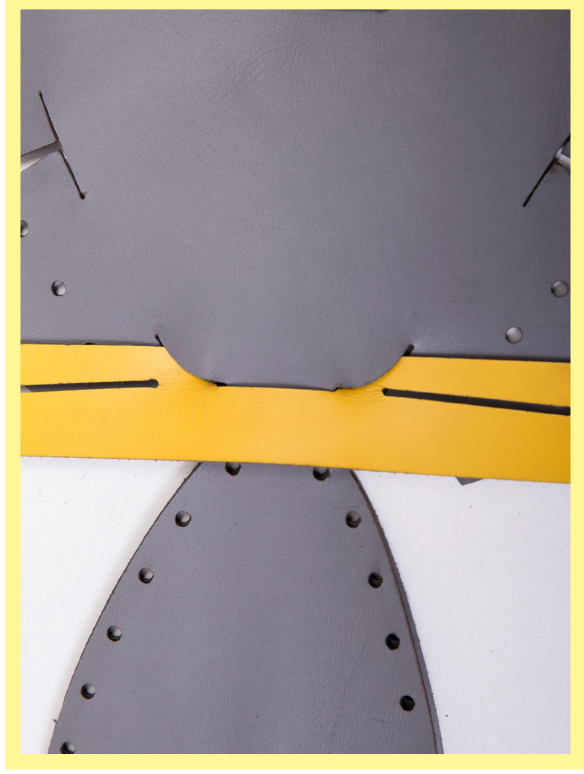


Be careful that the vamp
first passes over the strap
and after entering the
slot under
**CHECK ORIENTATION OF
PIECES**



Step 2

Make sure the parts sit flat in the slots



Assembly Guide



4 fold flap
5 slide flaps into sl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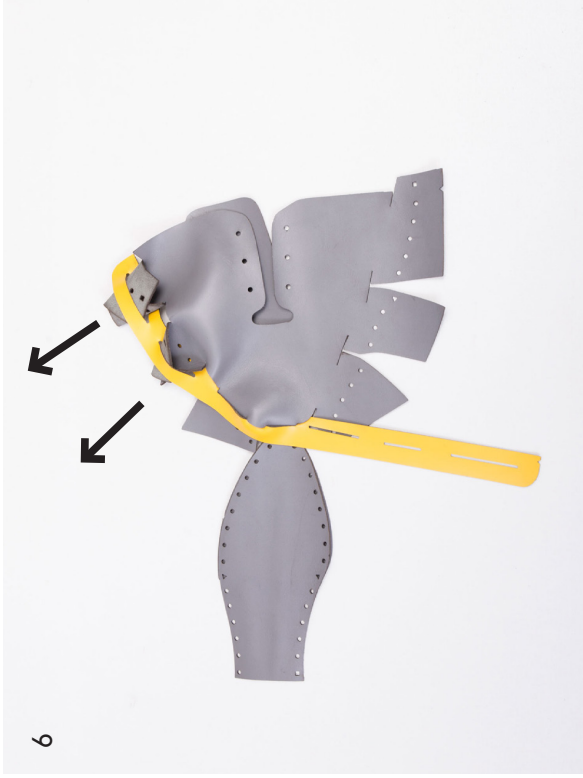
Be careful that the flaps first pass over the strap and after entering the slot under
Make sure the parts sit flat in the slots



Step 2



6 fold flap



6

7 slide flaps into slots



7

8 slide flaps into slots



8

Be careful that the flaps first pass over the strap and after entering the slot under
Make sure the parts sit flat in the slots



Step 3

A Components:
+ Back Strap
+ Counter

B Goal:
Connect Back Strap and Counter



B



1

Check for inside marks
**CHECK ORIENTATION OF
THE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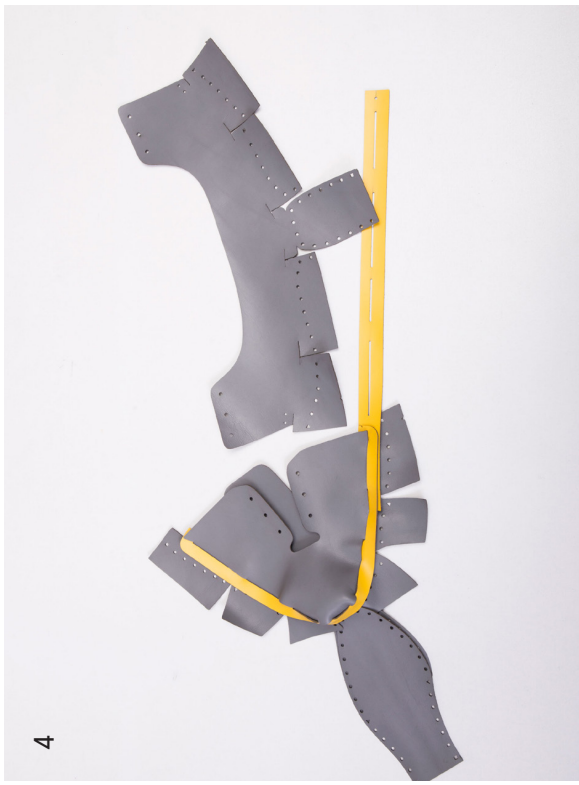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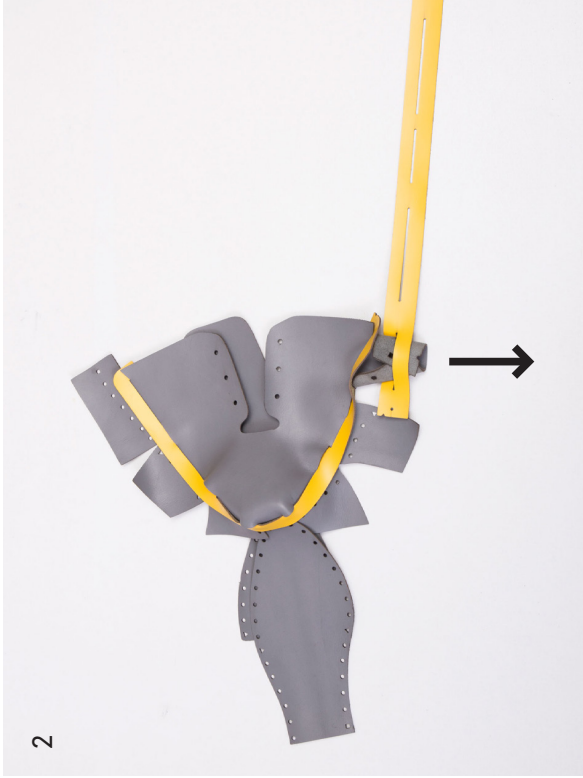


Step 3

- 2 fold flap
- 3 slide flaps into slots



Assembly Guide



Be careful that the back strap sits under the front strap
 Make sure the parts sit flat in the sl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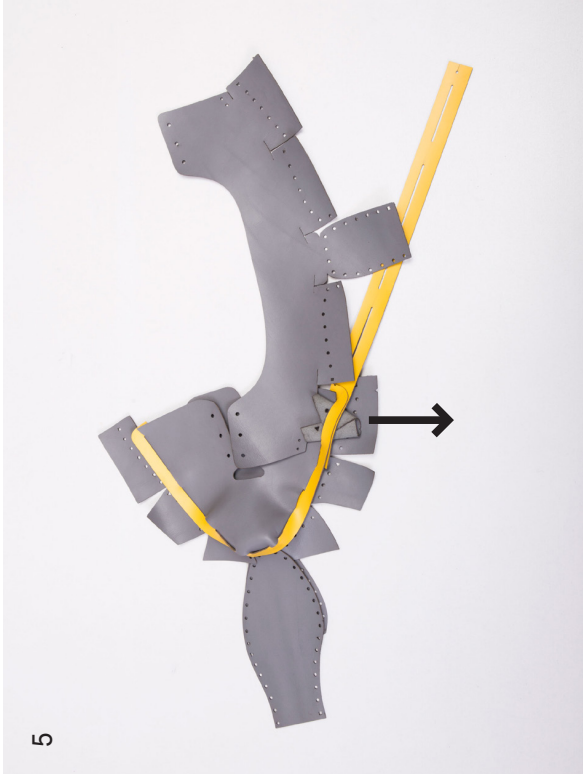


Step 3

Be careful that counter passes through both front strap and back strap
Make sure the counter sits over the vamp

5 fold fl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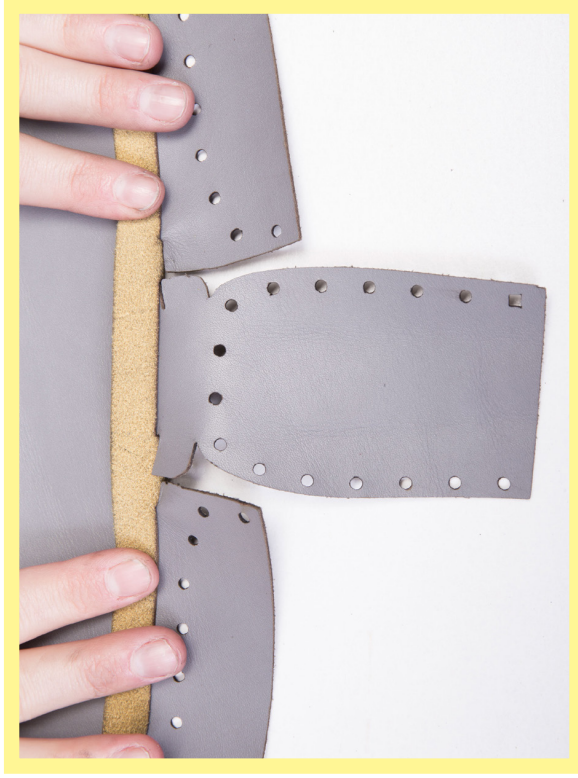
6 slide flaps into slots



5



6



Make sure the parts sit flat in the slots
DO NOT connect the last flap





Step 4

- 3 divide the lace equally
- 4 pull the lace until it sinks in the channel of the outsole



3



4

- 5 use needle to connect parts
- 6 start lacing all the layers in the right ord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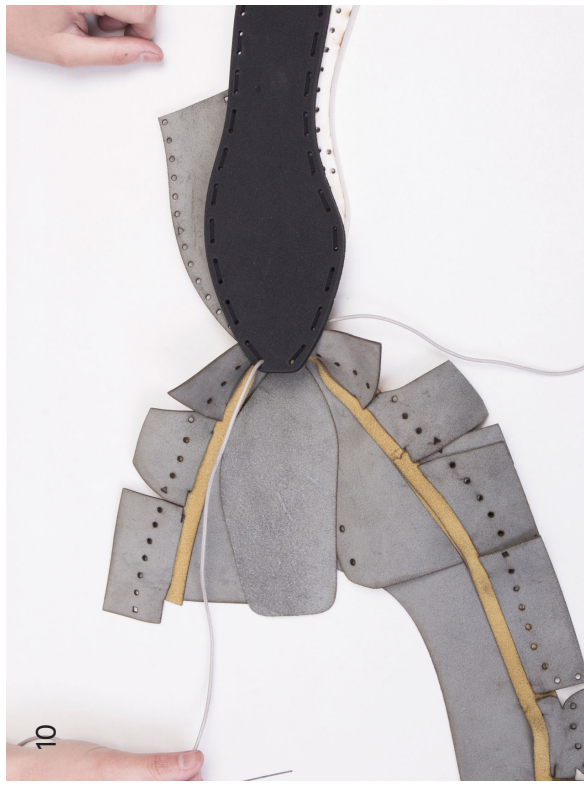
6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Step 4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Step 4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11



12



13



14



Step 4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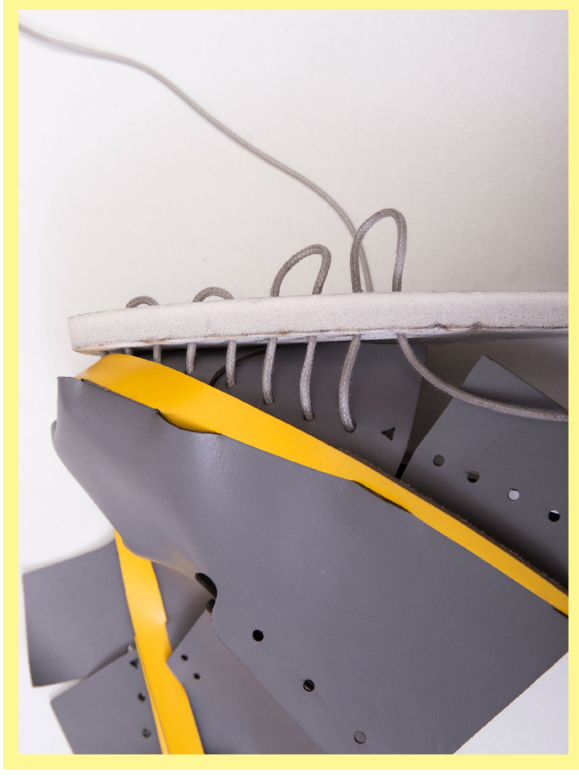


18



Step 4

STOP lacing BEFORE you reach the triangle.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Assembly Guide





Step 5

A Components:
No additional Components

B Goal:
Connect Inside Front of Upper, Insole and Outsole



1 move back to the front of the shoe and repeat Step 4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Step 5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Leave the lace quite loose so you have a better oversight over the parts



lace until you reach the triangular 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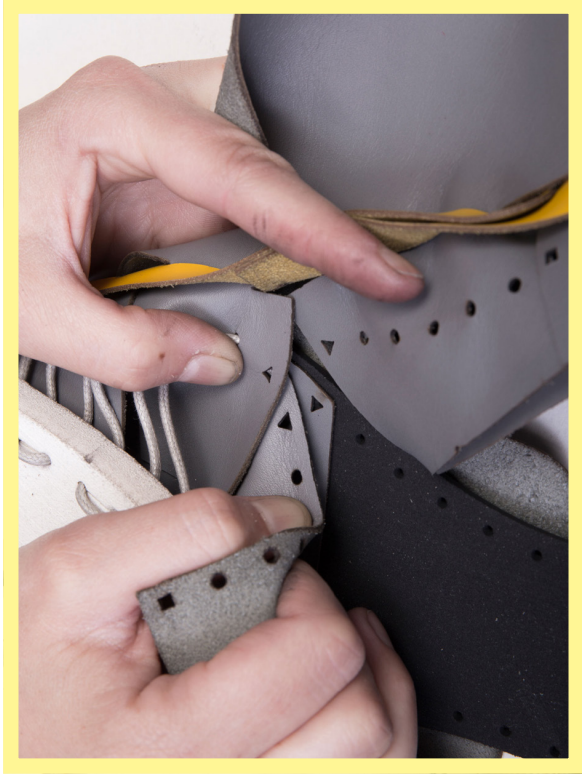


Step 5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Make sure you overlay all 4 triang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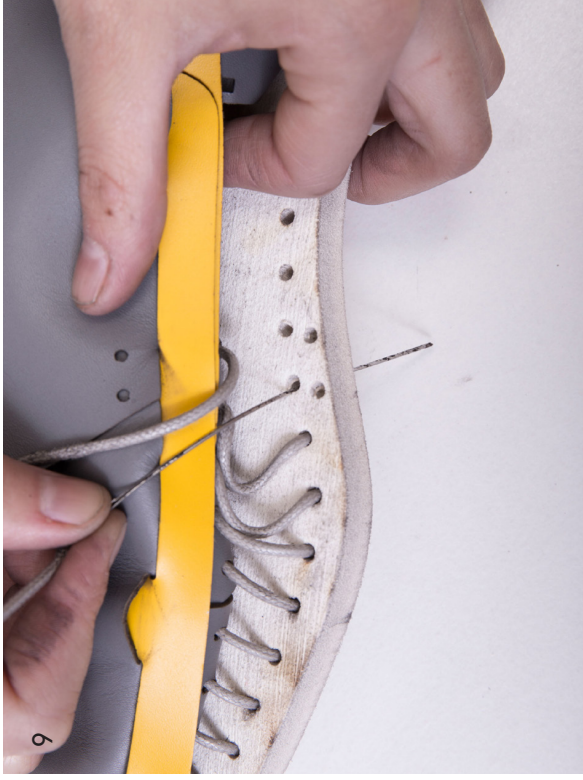
Assembly Guide





Step 5

- 9 continue lacing the next hole to reach the lacing slot
- 10/11 follow the images to lace through the outsole in the correct order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Step 5

/ tighten the laces

12/14 start pulling the laces moving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and back as you go along



Make sure the lace sits nicely in the channels of the outsole so you won't walk on it later





Step 5



15 tighten the laces

Make sure the lace sits nicely in the channels of the outsole so you won't walk on it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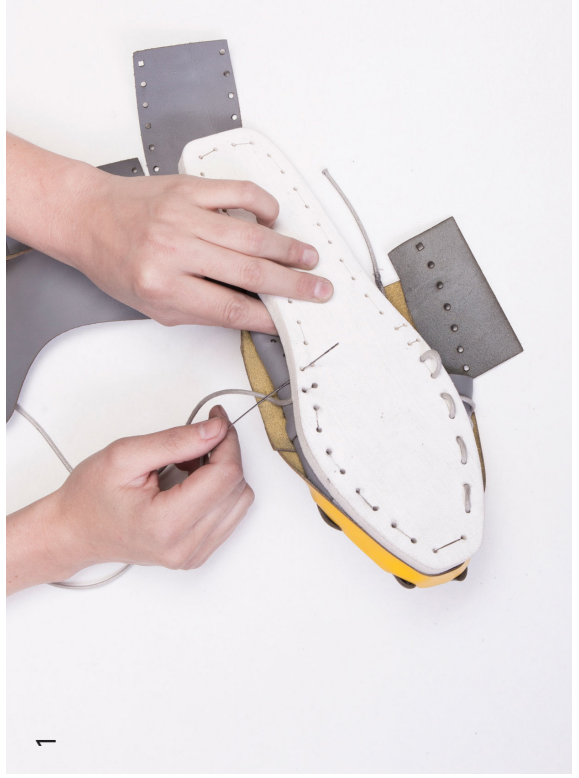
Step 6

A Components:
+ Back Lace
+ Heel Piece



B Goal:
Continue assembling the shoe until you reach the Centre Back

1 add back lace



2 pull the back lace to the same length as the front lace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Pull the back lace to the same length as the front 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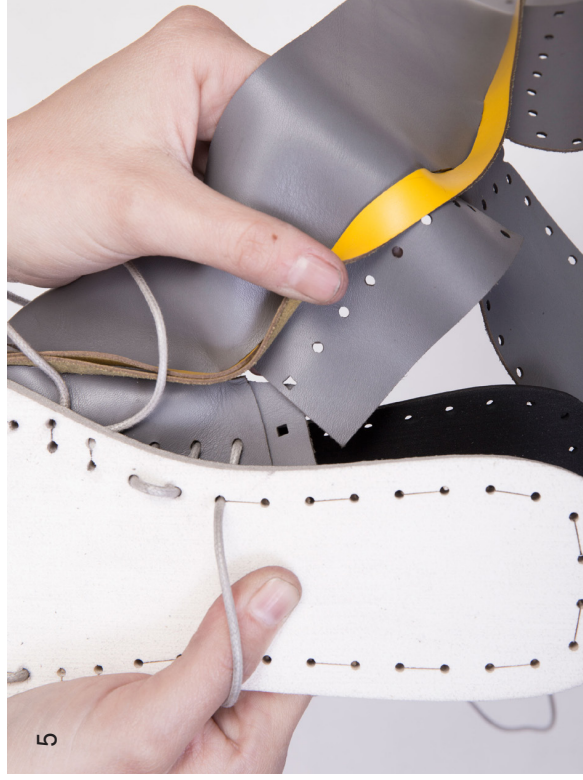


Step 6

3 lace the second hole of the lacing slot
 4 when the front and back lace have the same length pull the lace into the channel of the outsole to secure the measurement



5 continue lacing the layers in the correct order, when reaching the square shaped holes, make sure you catch all the squares



Be careful when reaching the squares to catch all the layers
 Make sure you don't forget to add in the heel pi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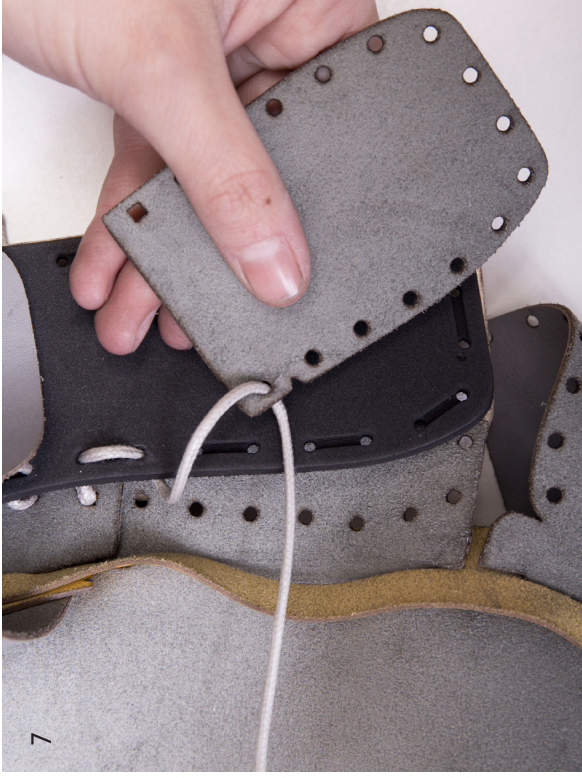


Ste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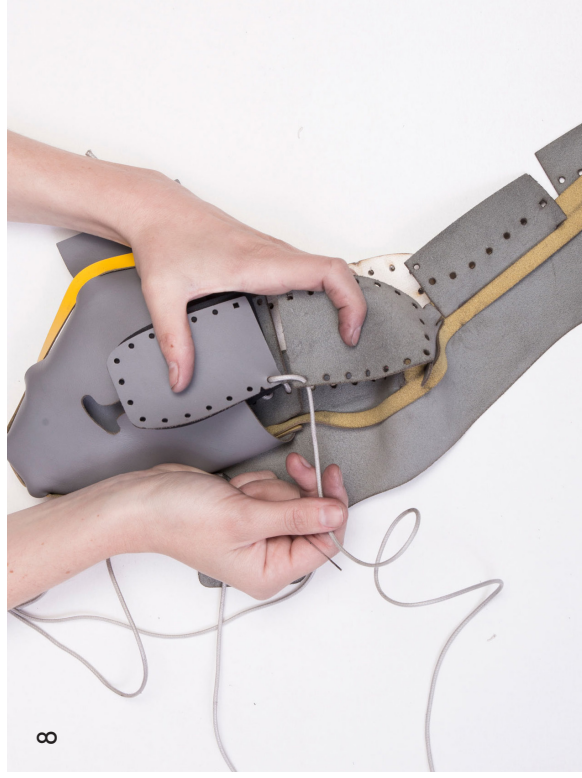
7 add in the heel piece

Check the orientation of the piece using the inside mark



8/9 continue lacing all the layers in the correct order

Make sure you don't forget to add in the heel piece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Step 7

A Components:
No additional components



B Goal:
Finish Connecting Upper, Insole and Outsole



1 after reaching the centre back continue lacing all the layers in the correct order

/ if you need more lace tighten starting from the inside lacing slot

2 lace until you reach the square



Be careful to lace in the right order - SEE IMAGES
The more loose the lace the more oversight you have
STOP before square



Step 7

before you can lace the rest of the shoe you need to connect the front and the back of the u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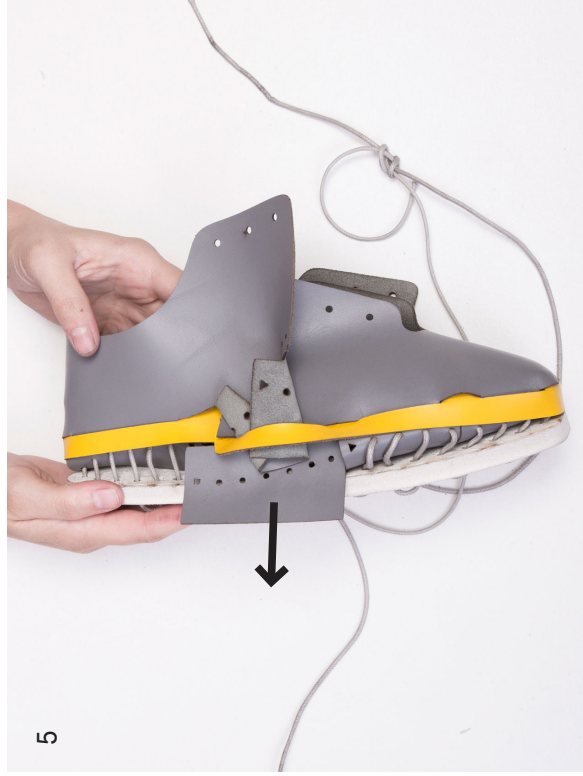
4 fold flap coming from counter



5 slide the flap into the front strap over the vamp

/if you are unsure double check STEP 3 to see how the pieces have to lie

Make sure pieces sit flat in the strap. When flap is placed in the front strap you can stretch the material in place a li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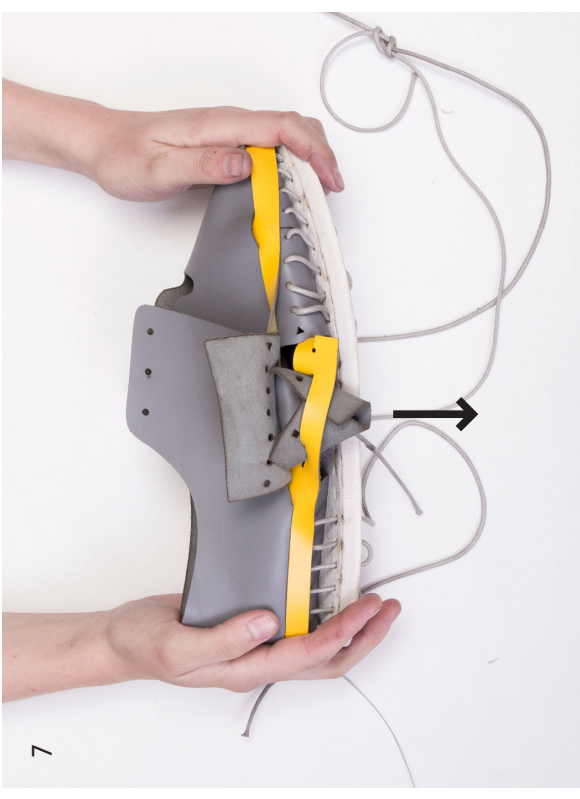
Step 7



6 now both vamp and counter need to pass through the back strap as well

7 fold flap coming from vamp (lying underneath)

/if you are unsure double check STEP 3 to see how the pieces have to lie



8 slide the flap into the back strap

9 repeat the step for the flap coming from the counter



Make sure pieces sit flat in the strap
When flaps are in place you can stretch the material in place a little



Step 7

10 now you can continue lacing the shoe together

make sure you don't miss to overlay all the triangular and square holes in the front and all the square holes in the back (4 layers)



10



11

12/13 lace lacing slot like you did in STEP 6



12



13

Don't miss the triangular and square holes vor overlaying all the layers correctly
Lace parts in correct order



Step 7

14 make sure you don't miss to overlay all the triangular holes in the front and all the square holes in the back (4 layers)

15 lace lacing slot like you did in STEP 6

Don't miss the triangular and square holes vor overlaying all the layers correctly
Lace parts in correct order



14



15



16

17

17 tighten all the laces always working towards the lacing slots



Step 7

- 18 tighten all the laces always working towards the lacing slots
- 19 pull the laces moving from the outside to the insole and back as you go along

you should carefully pull the lace to sit tightly in the outside as you can see in the images

Make sure the back strap inside the shoe is not stuck inbetween the insole and the outsole

Make sure the lace sits nicely in the channels of the outsole so you wont walk on it later



18



19





Step 7

- 18 tighten all the laces always working towards the lacing slots
- 19 pull the laces moving from the outside to the insole and back as you go along

you should carefully pull the lace to sit tightly in the outside as you can see in the images

Make sure the back strap inside the shoe is not stuck inbetween the insole and the outsole

Make sure the lace sits nicely in the channels of the outsole so you wont walk on it later





Step 8

A Components:
No additional components

B Goal:
Finish Assembling the Shoe



/ finish lacing up the shoe following the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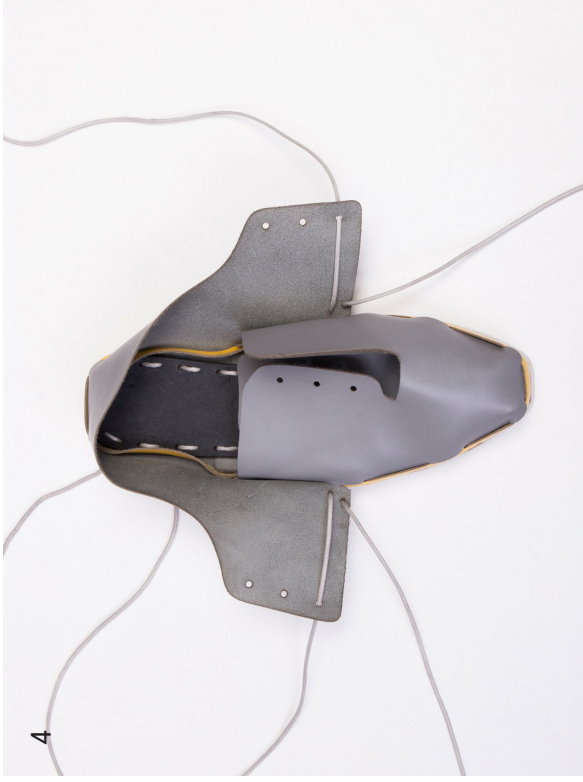
Step 8

/ finish lacing up the shoe following the images

Make sure to catch both layers of the upper when going through the eyel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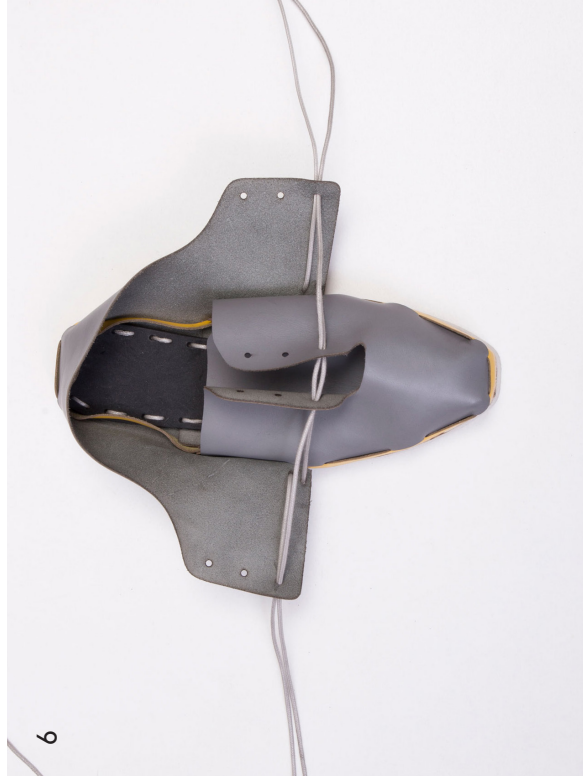
3



4



5



6



Step 8

/ finish lacing up the shoe following the images

Make sure to catch both layers of the upper when going through the eyelets



Assembly Guide





Assembly Guide





contacts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write to hello@anothershoe.net, or look at anothershoe.net

Please share your shoe with us via instagram using [#anothershoe](https://www.instagram.com/anothershoe) or via mail writing to hello@anothershoe.net

AnOtherShoe is a project of Sophia Guggenberger and Eugenia Morpurgo.

AnOtherShoe is:

open. All the technical drawings are shar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and clear instructions for production/assembly and repair are available. Through a platform, a network between consumers, maker and designers is created. Information about maker spaces and material sources are shared.

Knowledge is openly shared through workshops

simple. A simplified construction facilitates a simplified production process.

The consumer is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making of his product.

sustainable. The shoes are made locally and on demand, thereby not generating over production. They are repairable and the components can be disposed of separately.

Instruction made by AnOtherShoe, photos by Federico Flori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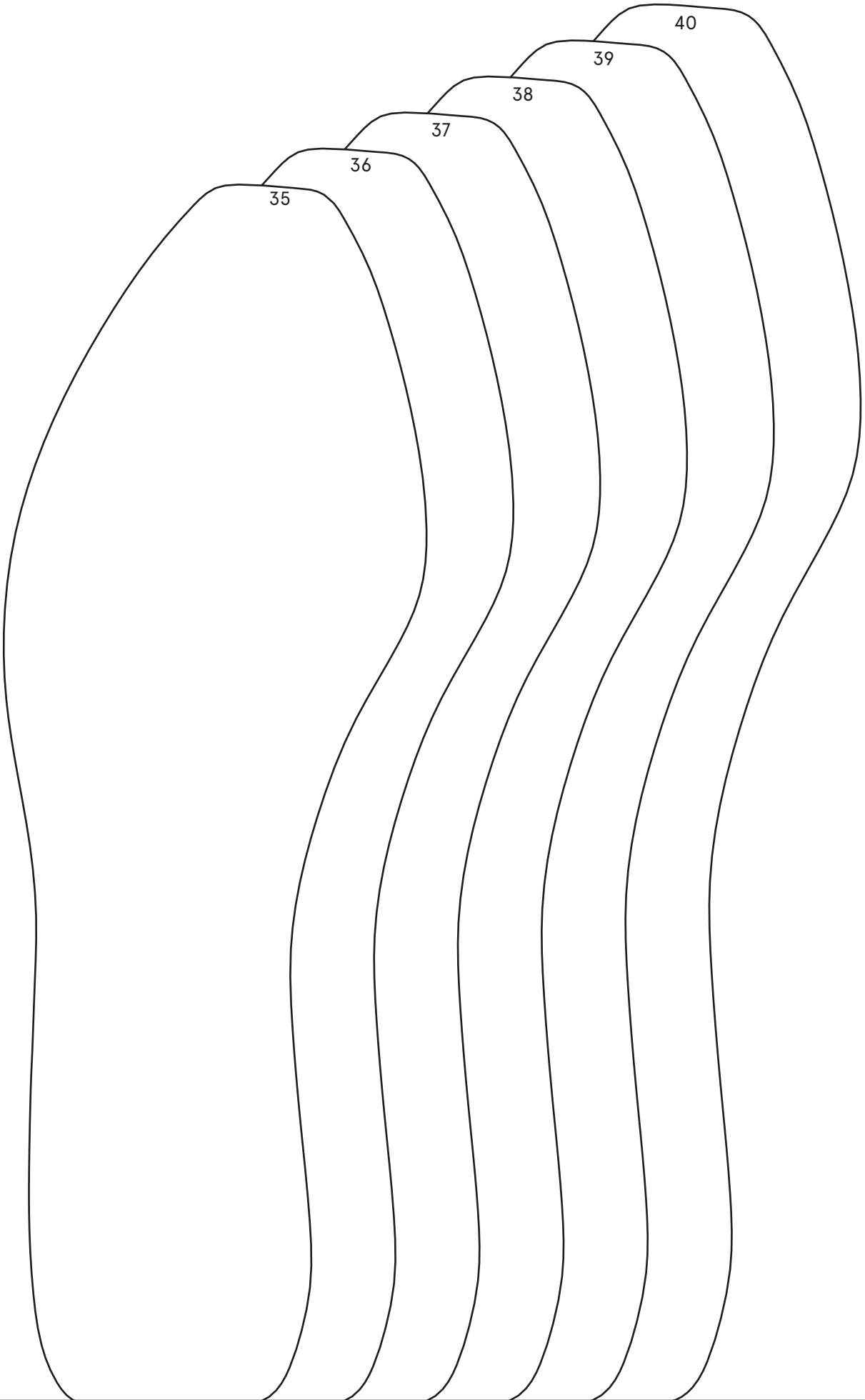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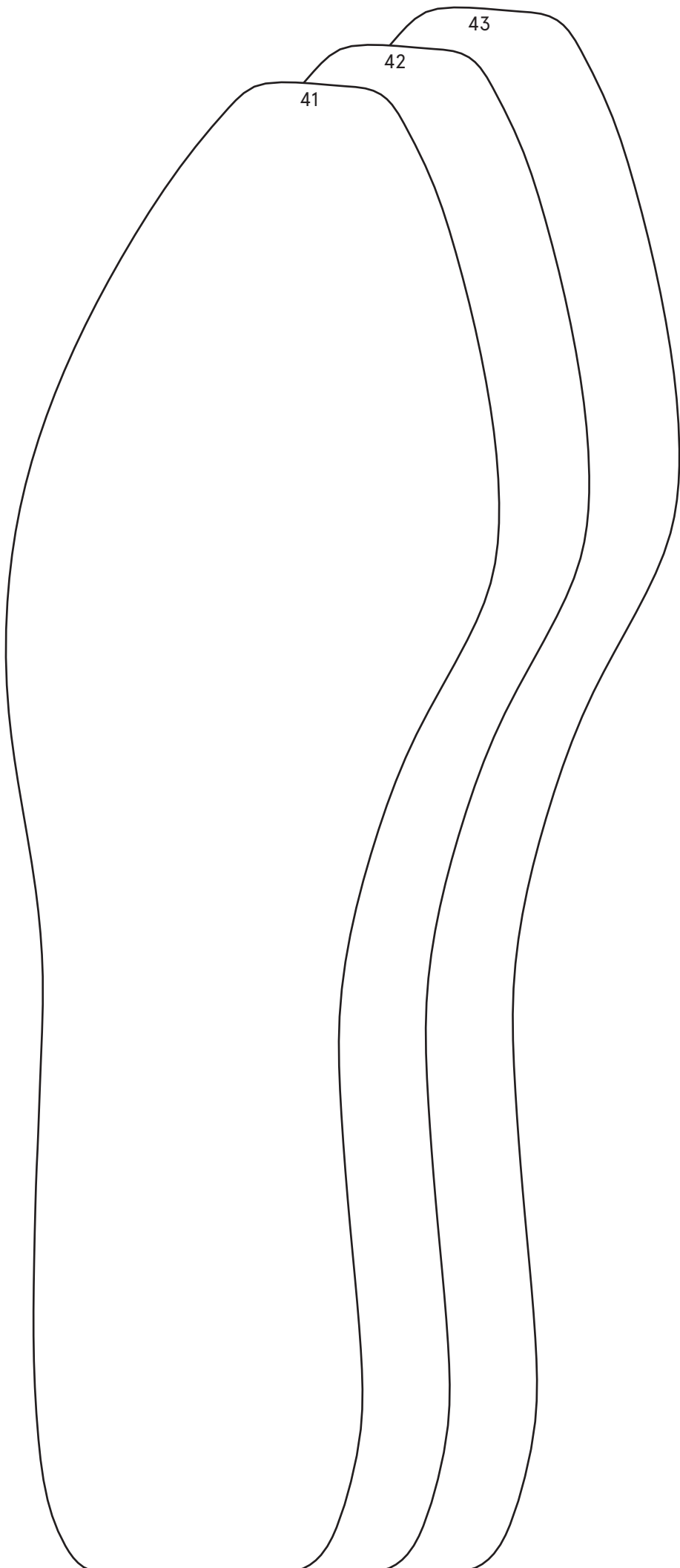
A—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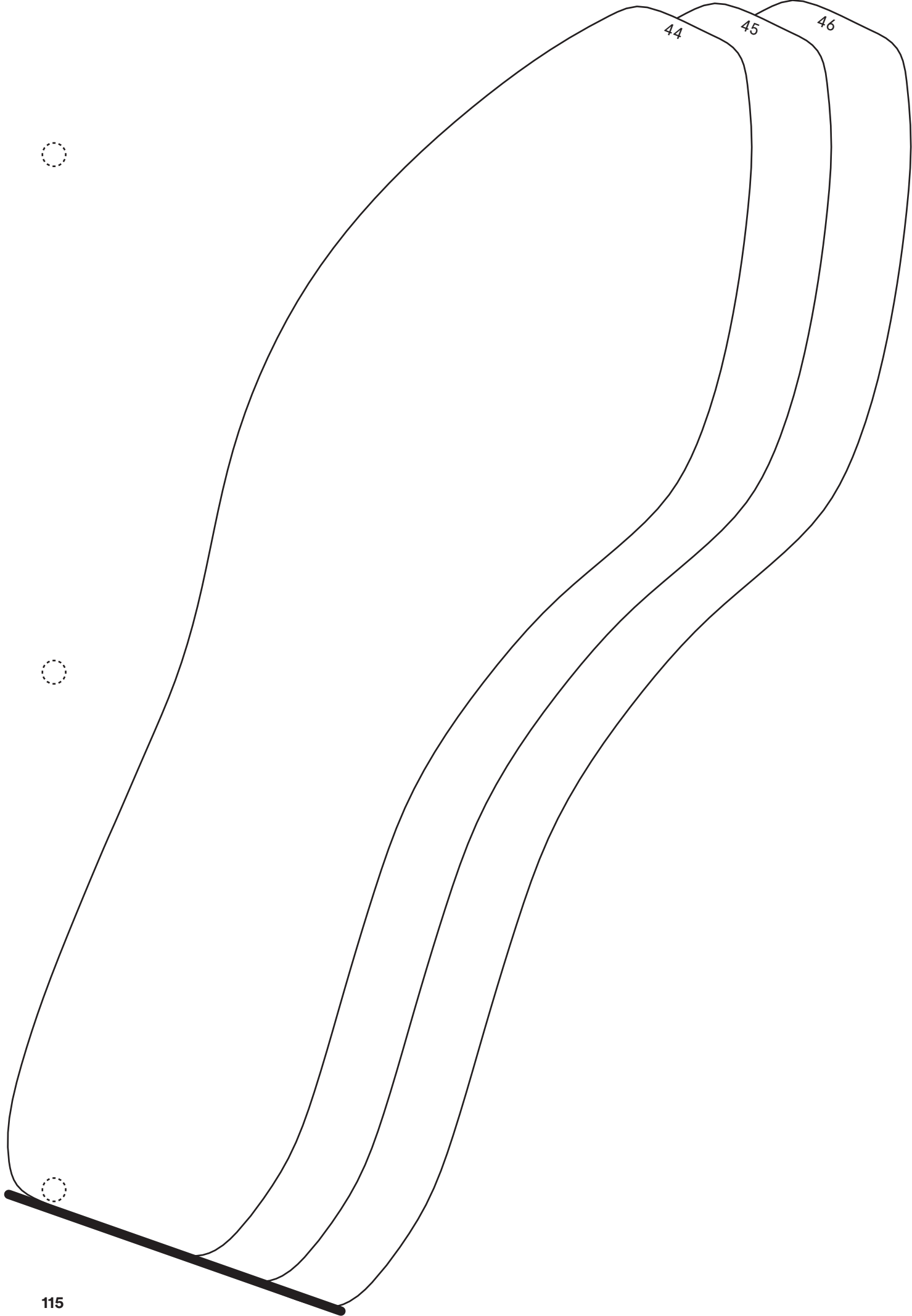
Sizing Guide

**print the following pages in A4 ,
do not scale the file, align your
tallon with the line and see which
AnOtherShoe size you are.**









44

45

46



Reliquum

4





Reliquum 릴리쿰

릴리쿰은 생산적 일탈을 지향하는 DIY 활동 그룹 땡땡이공작과 제작자 정혜린의 Slow Fab이 함께 만들고 있는 제작 공간이다. ‘만들기’를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취하여 환경과 일상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각기 다른 재료를 다루는 제작자들이 모여 독립적인 창작/생산 활동과 판매,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함께 열어가는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인데, 제작자들은 그 안에서 각자가 시도했던 실험사례를 공유하고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간다. 릴리쿰은 작업장이자 제작자들의 살롱의 모습을 지향한다.

Reliquum



Sub Project 01 ‘알파고’도 호작질부터

월간실패 2016년 2월호



Sub Project #02 전자요리 오픈 키친

Electron Cookery's Open Kitchen

월간실패 2016년 3월호



Sub Project #03 개인의 생산

월간실패 2016년 4월호



Sub Project 01

‘알파고’도 호작질부터 월간실패 2016년 2월호

만들기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화장품, 문갑 속 상자 안의 상자 안의 상자들. 온갖 종류의 식용 가루와 신발장 속 공구 서랍을 뒤져보면서 자랐다. 이 무슨 호작질이냐고, 등짝을 얻어맞을 걸 알면서도 기어이 뜯어보게 되는 라디오. 무슨 용도인지 몰라도 일단 한 번 눌러보게 되는 버튼. 의미 없이 쌓고, 부수고, 뜯고, 붙이는 이런 행위가 만들기로 이어진다.

‘호작질’은 경상도 방언으로 ‘쓸데없는 손장난’을 뜻한다. 단어 자체가 실패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실패는 유예한 성공이며, 성공은 유예한 실패다. 이 말장난 같은 논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잉여로움에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 실패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작 공간인 릴리쿰에 당신을 초대하니, 부디 마음껏 망쳐보시라.

재료

바닥재료(무료) : 전선, 자투리 나무, 종이, 고장난 기계, PCB 바,
어디서 뜯어낸 소자와 잡다한 ‘폐품’

책상재료(유료) : 새것. 종류별로 분리되어 비치된 각종 전자부품들

장비

손톱, 드릴, 드라이버, 인두기, 펜치, 스트리퍼,
롱노우즈, 병커터 / 나사, 못, 접착제

공유

이면지, 펜/연필, 종이를 벽에 붙이거나 걸 수 있는 장치

알파고도 '호작질'부터

- ✔ 우선 호기심을 갖고 상자 속을 뒤져 봅시다
- ✔ 재료는 원하는 대로 옮겨도 됩니다
- ✔ 원하는 만큼 더 작게 분해해도 상관없습니다
- ✔ 부쉬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 ✔ 용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쓰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직접 만든 것은 가져도 됩니다
- ✔ 책상 위, 가격표가 붙은 부품은 유료입니다. 자율 구매해주세요





Sub Project #02

전자요리 오픈 키친

Electron Cookery's Open Kitchen

월간실매 2016년 3월호

〈전자요리 연구회〉는 전자 제품의 매뉴얼 익히기에 그치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기술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과거의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의 기술은 갈수록 직접 만지기 어려운, 추상적인 환경이 되어 간다. 〈design without Design〉에서 실험할 전자요리 연구회의 프리젠테이션은 기술과 나의 간극을 인지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풀어내 공감대를 확장해 보는 시도이다. 동시에 과학과 기술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 과학’을 지향하는 문화가 디자인을 통해 생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묻는 탐색이다.



오픈 키친은

- ‘요리’라는 메타포를 통해 ‘과학’에 접근한다.
- ‘요리’를 통해 나만의 ‘보드(회로기판)’를 직접 만드는 레시피를 연구한다.
- 일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재료들을 활용하고, 굽거나 끓이거나 태우는 행위를 동반한다.
- 연구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 워크숍의 과정을 영상, 사진으로 기록하여 아카이브로 남기고 이를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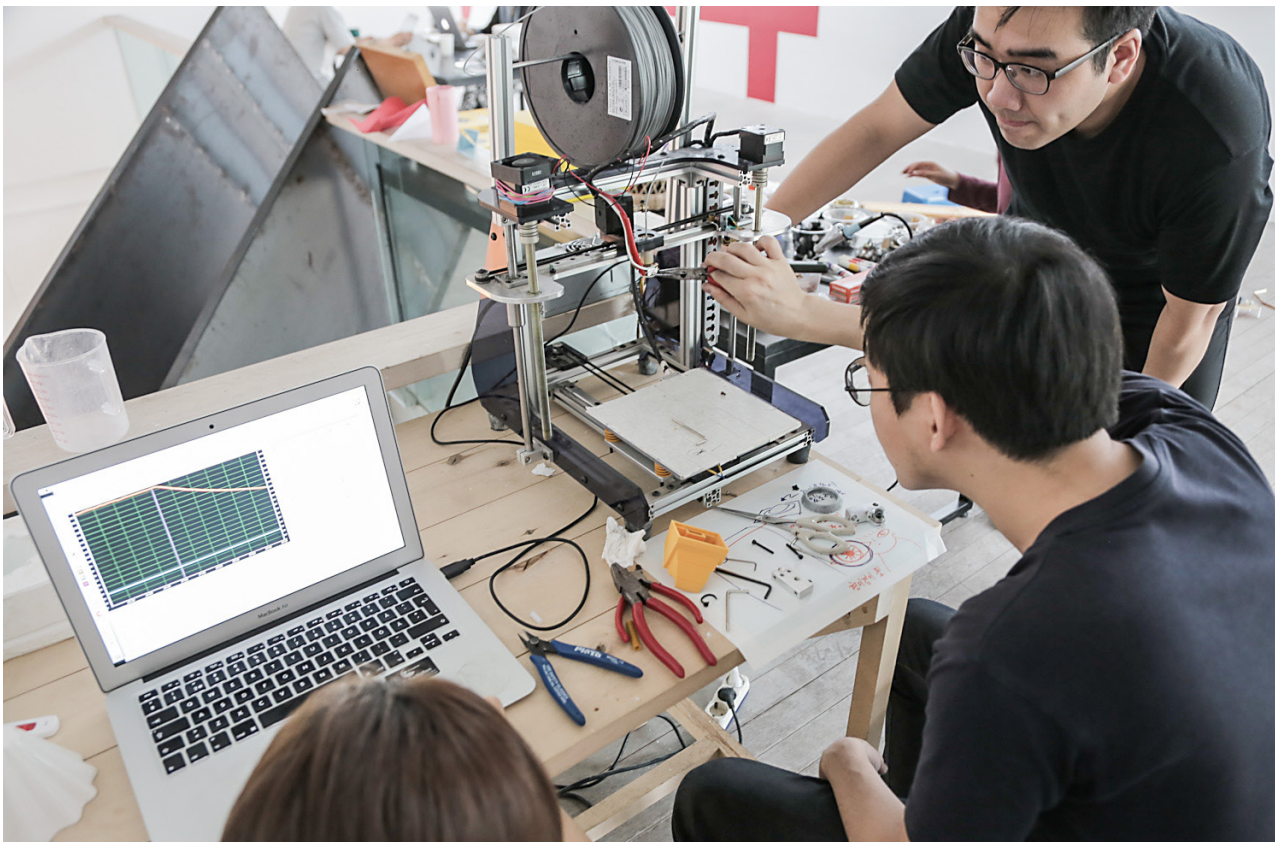
Sub Project #03

개인의 생산 월간실패 2016년 4월호

‘개인의 생산’은 디지털 제조 기술로 내가 디자인할 물건을 만들고, 공예 기법으로 석고 틀을 제작하여 1인 제조 시스템을 갖추어보는 제작 워크숍이다. 3D프린팅, 레이저커팅 등 디지털 제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상에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예가 제작자를 비롯한 일반 생활인들에게 소량 제조기술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산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3D 프린팅을 이용한 도자 슬립캐스팅 워크숍>을 통해 함께 체험해 보고자 한다.



*슬립캐스팅은 석고 틀을 이용하여 하나의 물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소량이더라도 양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 방식으로 바라본다.





Do-one I'm

5






임도원


임도원은 1979. 9. 22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자신의 감성과 관객의 감성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작품을 발명(?)하고자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 제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학원 졸업 후 취업하여 현장에서 설계와 3D 모델링을 배우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디지털 조각을 강의하며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3D 프린터가 결국 작가나 디자이너에게 주어져야 할 도구라 생각하고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작가의 아트프로젝트의 하나인 “HONJA FACTORY(혼자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들과 협업으로 열고 있다.



2014년 5월 베이징 798예술지구에서 열린 개인전 “예측할 수 없는 분기점”에서 스스로 설계한 3D 프린터로 제작한 작업을 선보였다. ‘BOTIST’라고 이름 붙인 이 3D 프린터는 제작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 또 제작과 개조가 수월해 다양한 실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OTIST’를 활용해 작가 혹은 디자이너들이 일반인에게 다양한 작업이나 창업 아이디어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현재 몇몇 작가들과 ‘BOTIST’를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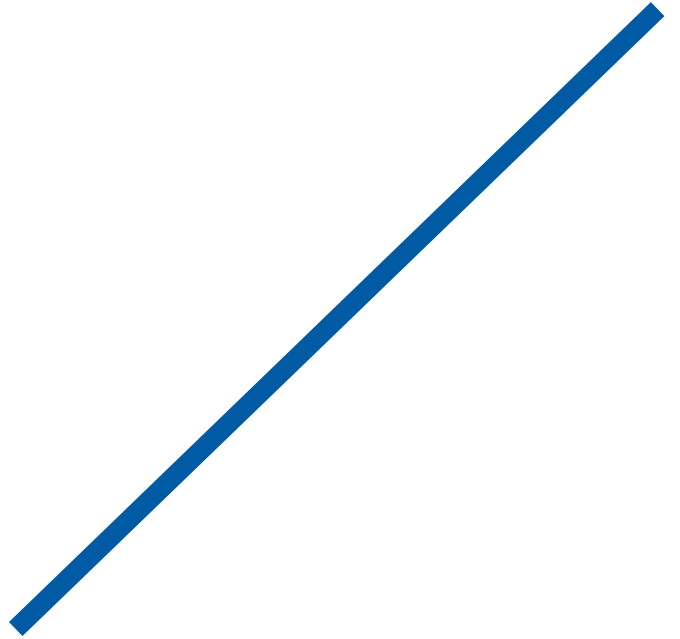
프로젝트와 ‘BOTIST’에 대한 내용은 작가의 개인 페이스북과, “HONJA FACTORY(혼자 팩토리)” 그룹 페이지를 통해 틈틈히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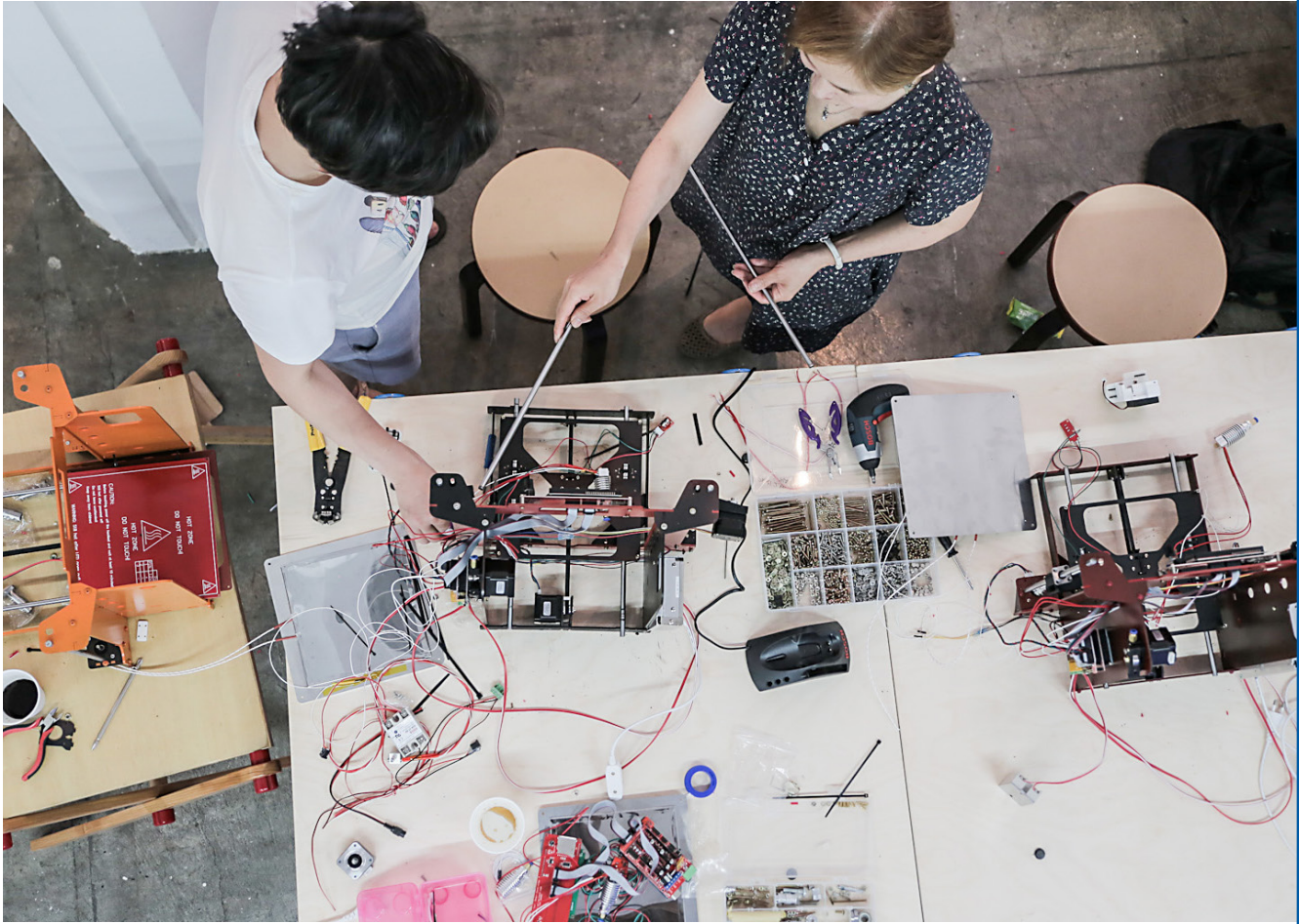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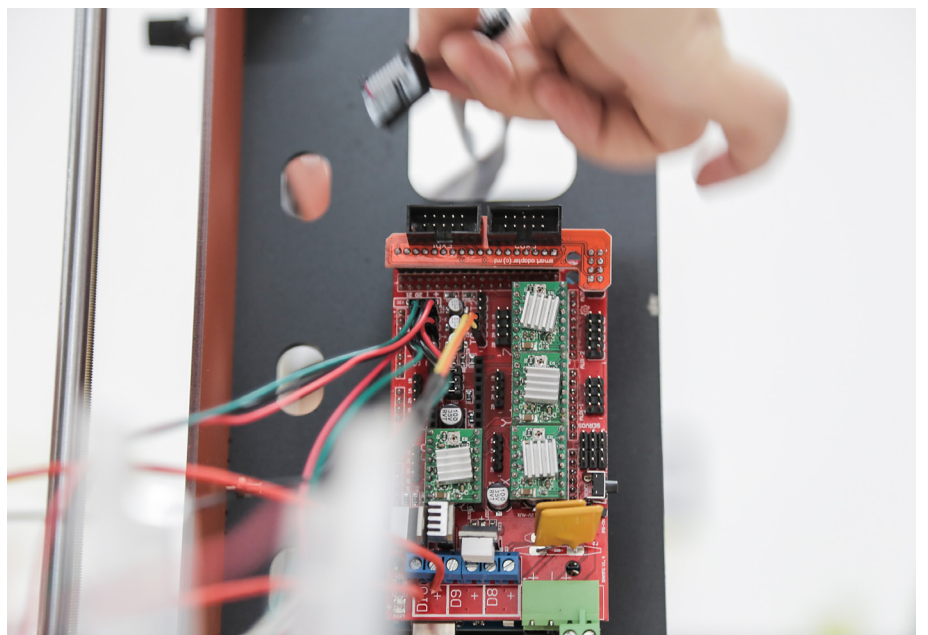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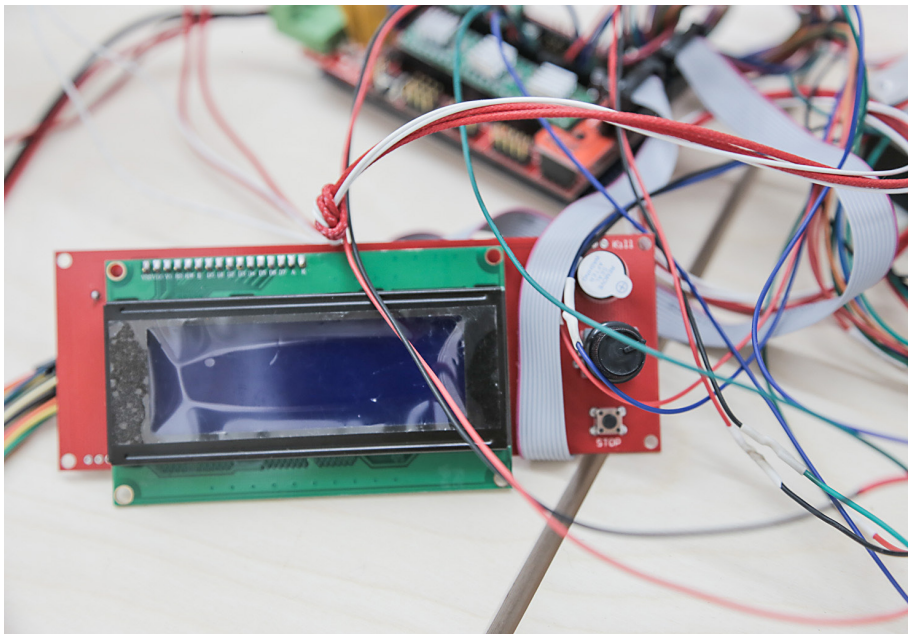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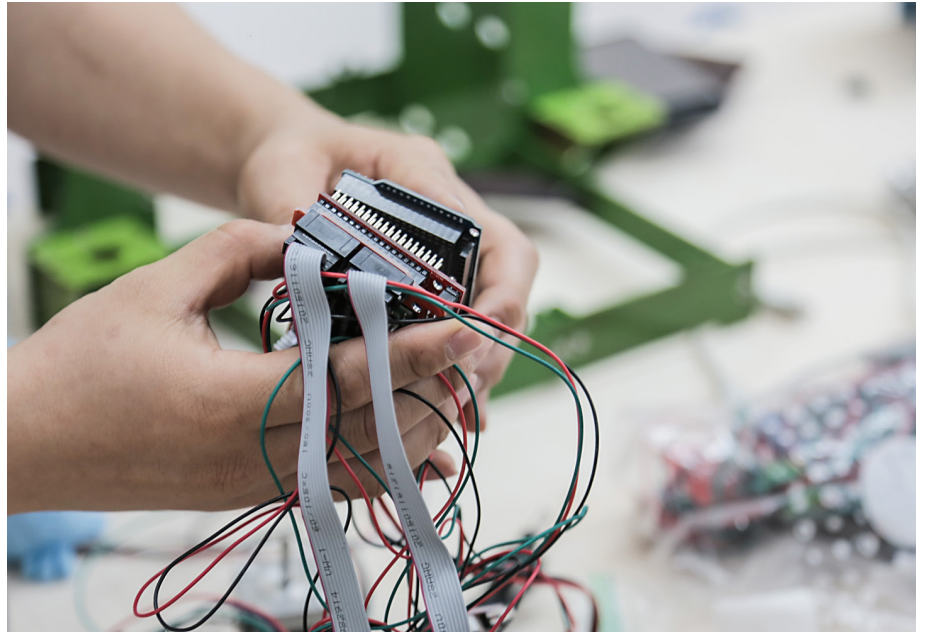
Do-one 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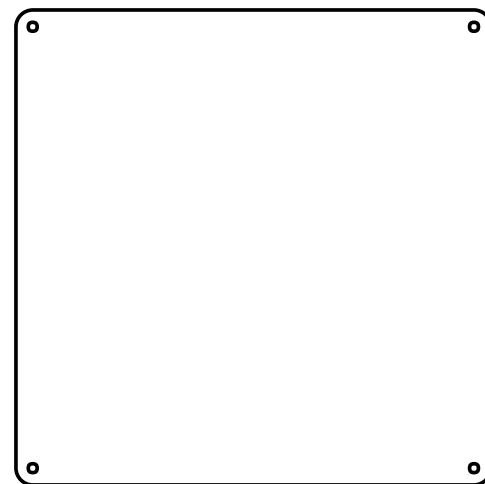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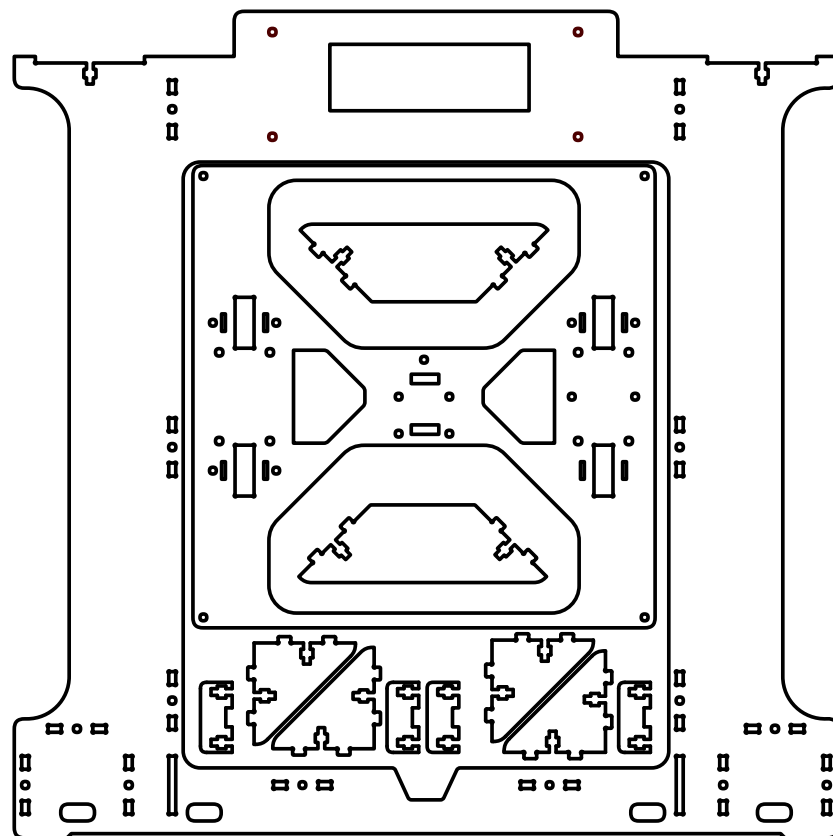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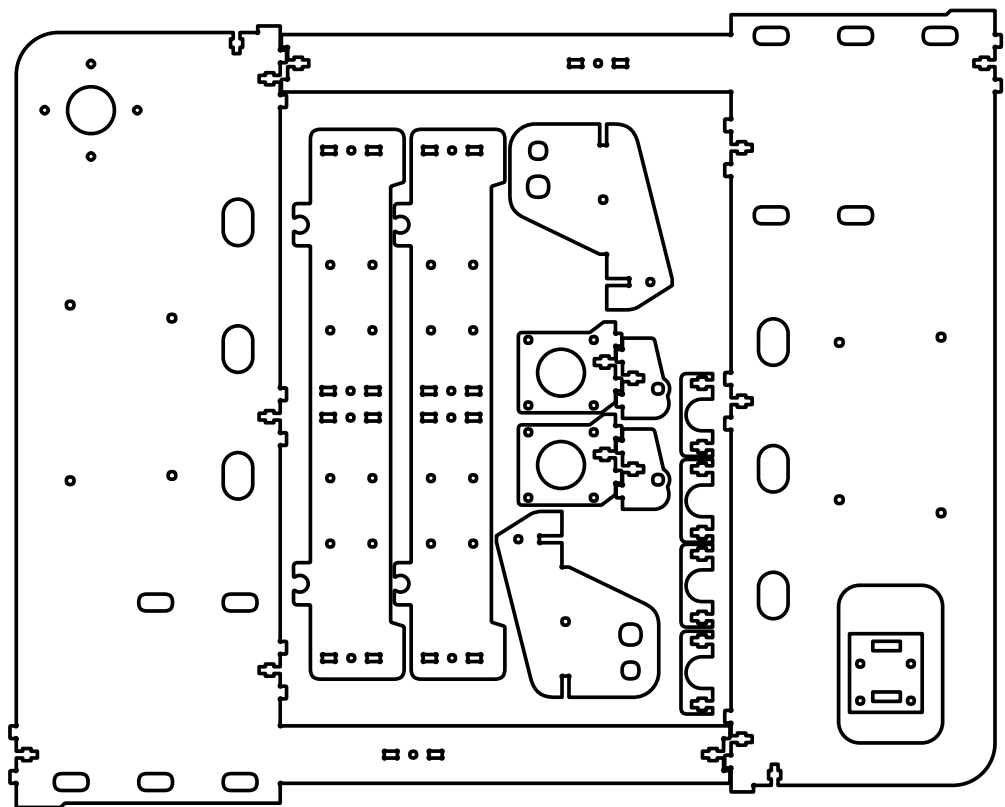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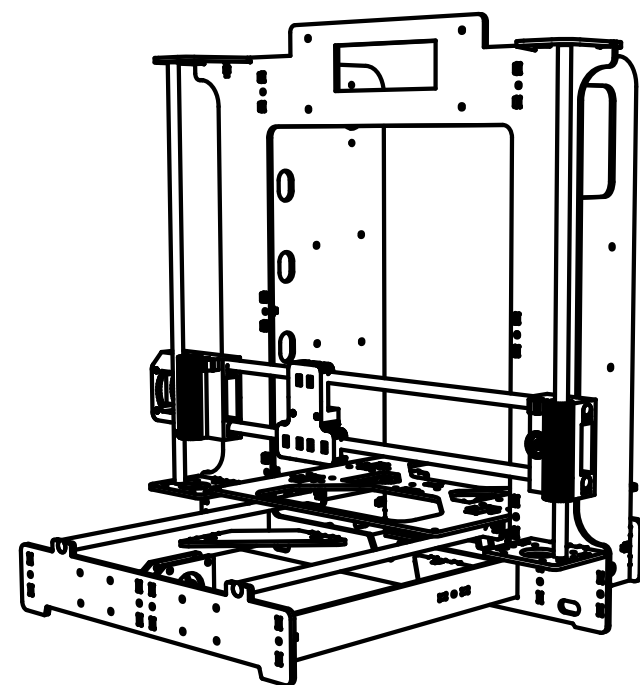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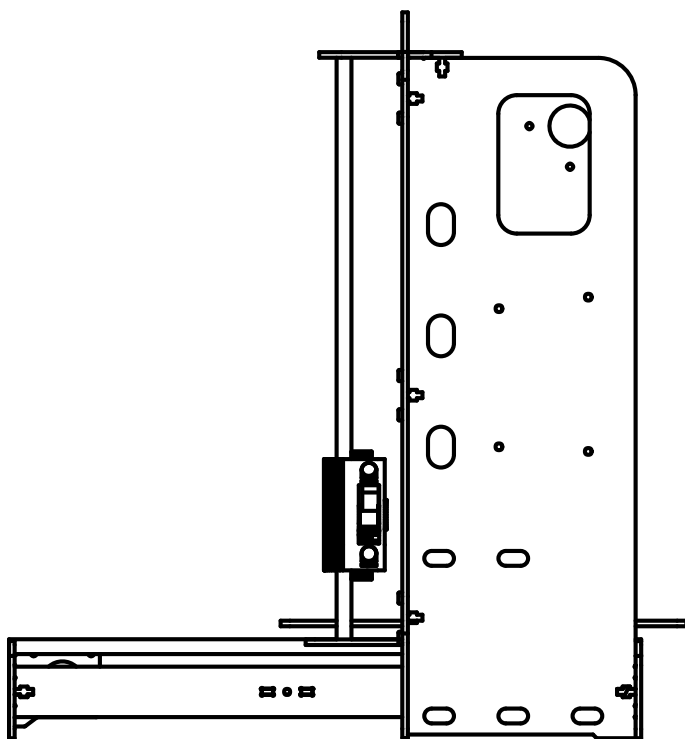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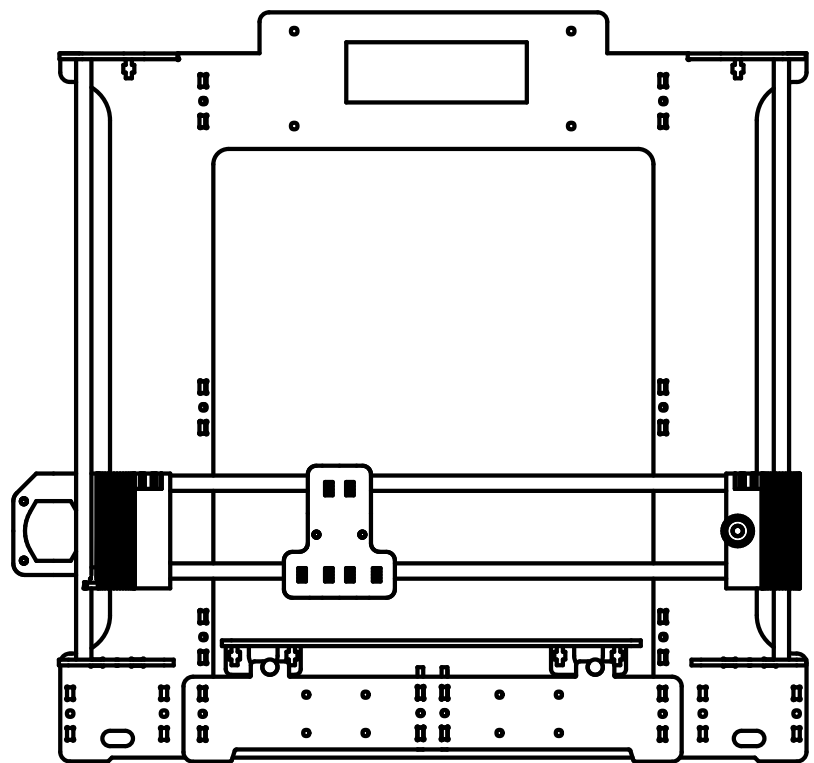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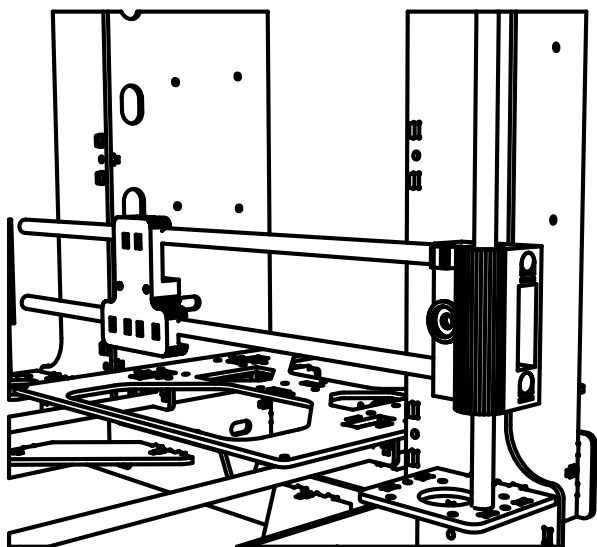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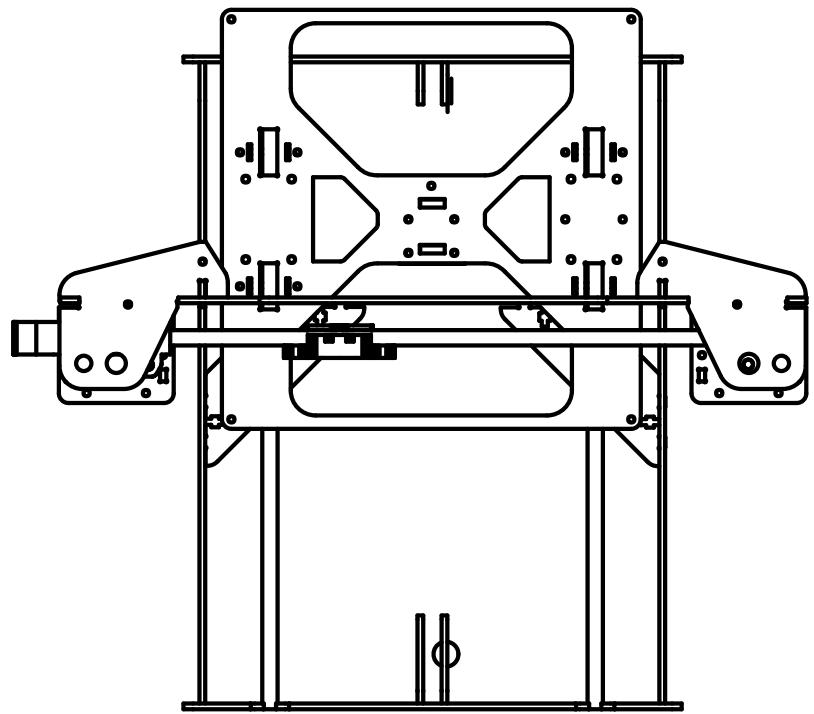














Joonghan Lee






샬럿 떼에와 이중한은 스위스-한국 출신의 듀오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수학 중 만났다. 서로 다른 출신과 디자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의 강점은 전체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을 보완한다. 삶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 최근 서울로의 이주를 결심했다.

Charlotte Therre (CH/FR) | 샬럿 떼에 (프랑스/스위스)



스위스에서 건축과 행동심리학을 공부한 후, 제품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2016년 마침내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마쳤다. 최근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옮겨왔다. 샬럿은 우선 문화적으로 열려있으며, 사물이 작동하는 방법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녀의 작업은 기능적이고 시적인 방법 모두에서, 재료와 그 특성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이 기능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만큼, 그녀의 의도는 항상 오브제의 스토리텔링과 특정 문맥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Joong Han Lee (KR) | 이중한



이중한은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로스앤젤레스의 오티스디자인스쿨에서 인터랙티브 제품 디자인과 목공기계를 공부한 후,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아티스트로서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 예술 아카데미의 레지던시에 거주하며, 또한 초청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2년 코어77 디자인 어워드에서 그의 프로젝트인 '햅틱 인텔리겐치아Haptic Intelligentsia'로 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IEEE 세계 햅틱 컨퍼런스에서 메인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1년, 스튜디오 호문클루스를 설립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이너, 리서처, 에듀케이터로 일하고 있다.







